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27일 수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55호

남조선특사, 4월 평양 방문

민족앞에 닥쳐 온 엄중한 사태와 북남관계문제 협의

평양 3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김대중대통령의 특사가 4월초에 평양을 방문한다.

쌍방은 민족앞에 닥쳐 온 엄중한 사태와 함께 서로 관심하는 북남관계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게 된다.

북과 남에서 동시에 발표된 김대중대통령특사의 평양방문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고 6.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기로 될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사로 파견될 임동원특보

부쉬 미국정권과 추종세력의 반공화국강경소동으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증대되고 북남관계가 정체상태에 빠진 엄혹한 상황에서 이루어 지는 특사방문에서는 ≪민족앞에 닥쳐 온 엄중한 사태와 함께 서로 관심하는 북남관계문제≫(북측발표)가 협의된다. 한편 남측에서도 조선반도 긴장조성 예방, 6.15공동선언 준수, 북남합의사항 리행문제들이 협의된다고 발표하였다.

쌍방 발표로 미루어 특사방문을 통하여 토의될 핵심문제는 외세의 강경소동으로 조성된 사태의 타개, 6.15공동선언의 고수, 리행문제이다.

우리 민족끼리 손 잡아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는것은 6.15선언의 기본정신이며 우리 민족끼리 손 잡고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길만이 외세에 의하여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올해초에 진행된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에서 3대호소와 3대제의를 내놓아 부쉬정권의 강경책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난국을 우리 민족끼리 단합하여 타개해 나갈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올해 4월부터 6월에 걸쳐 진행되는 ≪아리랑≫공연은 우리 인민의 자주와 평화에로의 념원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일대축전이며 거기에는 민족의 화해단합을 촉진시켜 우리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기어이 이룩할데 대한 념원이 담겨져 있다.

온 겨레의 평화와 통일에로의 념원이 외세의 무모한 소동으로 엄중한 난관에 봉착한 시점에서 북과 남의 최고수뇌분들의 뜻을 받든 특사들이 평양에서 마주 앉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난국을 타개하며 6.15공동선언을 어김없이 리행할 의지를 확인, 온 세계에 선포한다면 그것은 외세의 간섭과 전쟁소동을 물리치고 민족의 통일운동을 촉진하는데서 커다란 돌파구로 될것이다.

오늘 북남사이에서는 당국간회담도 중단되고 있고 민간교류들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북남사이의 화해단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침체상태가 하루속히 타개되여야 하며 이미 합의한 일련의 사항들이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 져야 한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각종 북남회담들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있다. 그중 가장 높은급에서 이루어 진 합의는 우리 나라의 김용순비서가 공동선언발표 3개월후에 서울을 방문, 남측의 림동원 당시 국정원장사이에서 합의한 내용들이다.

2000년 9월 14일에 발표된 공동보도문 1항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앞으로 가까운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시며 이에 앞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에서 결정적전환이 되여야 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서울방문에 앞서 김영남상임위원장의 서울방문을 통하여 그 토대와 환경을 조성하자는것이 이 합의의 취지이나 오늘의 상황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북남사이의 합의가 실천에 옮겨 지지 않고 답보하게 된 근본요인이 외세에 있는것만큼 이번 특사방문을 통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의 간섭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고 통일운동을 활성화할 돌파구가 열려 져야 하며 일련의 합의들이 실천에 옮겨 져야 한다.

4월 첫주에 평양을 방문할 특사는 김대중정권하에서 대통령측근으로서 북남관계를 관할하여 온 림동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이라 알려 졌다.

조선신보 2002/03/26

발전노조원의 목숨줄이 끊긴다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발전노조 파업에 해법은 없는가? ≪한치의 양보도 있을수 없다≫고 공언하고 있는 정부측의 주장은 과연 합당한 것인가?

지난달 25일부터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한 발전노조가 ≪산개투쟁≫을 벌여온지 1개월이 지났다. 몇 차례의 공식적인 접촉과 타협을 위한 물밑 협상의 과정이 지난하게 진행됐지만 정부측의 ≪민영화 강행≫ 방침은 한발의 물러섬도 없었다.

파업 1개월을 맞은 25일, 정부는 파업결의대회를 진행중인 연세대에 경찰 병력을 투입해 381명을 연행하고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한 노조원 4천여명의 밥줄을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정치권과 학계 종교계등 사회 지도층 및 원로들의 중재 노력도 허사였다.

25일 오후 1시. 명동성당 앞에서는 발전노조 지도부등 노동계 및 사회단체 인사들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인권대통령의 인권학살 만행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플래카드를 펼쳐든 참가자들의 눈가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분노의 표시였다.

지난 25일 새벽 경찰의 공권력 투입과 4천여명 무더기 해고 결정.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지만 설마하는 기대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들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언급한 ≪발전파업 장기화, 전력대란, 민주노총 연대 총파업≫등의 문구들은 이제 더 이상 협상용이 아니다. 실제로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26일 오후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발전노조와 연대하는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제 ≪총력투쟁≫과 ≪엄중대처≫의 힘겨루기로 이어질 노사, 노정 대립양상이 눈앞에 그려지고 있다.

디지털말 2002/03/25

≪아리랑≫ 앞두고 외국 시찰단·취재진 줄이어

내달 29일부터 두달 동안 열리는 북한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총연습을 보려는 외국 시찰단과 취재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 마카오 등지의 여행사와 언론사 관계자들이 이달초 평양을 방문한데 이어 미국 AP통신 TV자회사인 APTN 런던본부 제작국장과 호주 및 러시아 1차 시찰단이 지난 19일 평양을 방문했다. 또 26일에는 AFP와 로이터, 일본 NHK, 영국 BBC방송, 중국등에서 기자 25명이 4박5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다. 이들은 평양 고려호텔에 체류하며 아리랑축전 사전준비 상황을 취재하고 축제 기간에 개방될 관광 코스를 견학할 예정이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26일 ≪외국손님들은 세계적인 걸작품으로 완성되고 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연습장면을 보고 큰 감동을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해외여행 선전센터≫ 아리랑관광단 단장 구리하라 다케시씨는 ≪과거에도 조선의 집단체조를 많이 보았지만 이렇게 훌륭하고 황홀한 공연은 처음이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또 중국 랴오닝성 국제여행사의 아리랑 공연 관광단 김무성 단장은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많은 사람이 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2/03/26

2 노작
•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

3 세기와더불어
• 4장 10절 잊을수 없는 사람들 (1)

5 칭송
• 혁명적의리 / 승리의 날은 오리라
• 려용의 여신

6 구국의 소리
• 용납할 수 없는 국정원의 폭압만행
• 구국의 소리 뉴스 - 3월 25일
• 생존권투쟁과 반미반전투쟁
•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책동 반대배격하자
• 고이즈미의 서울행각을 반대하는 규탄집회 이어져
• 이회창, 너는 죽어야 한다

9 조선중앙방송
• 주체 91, 3월 25일 보도
• 위대한 선군사상의 결사관철자가 되자

11 평양방송
•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을 현명하게 조직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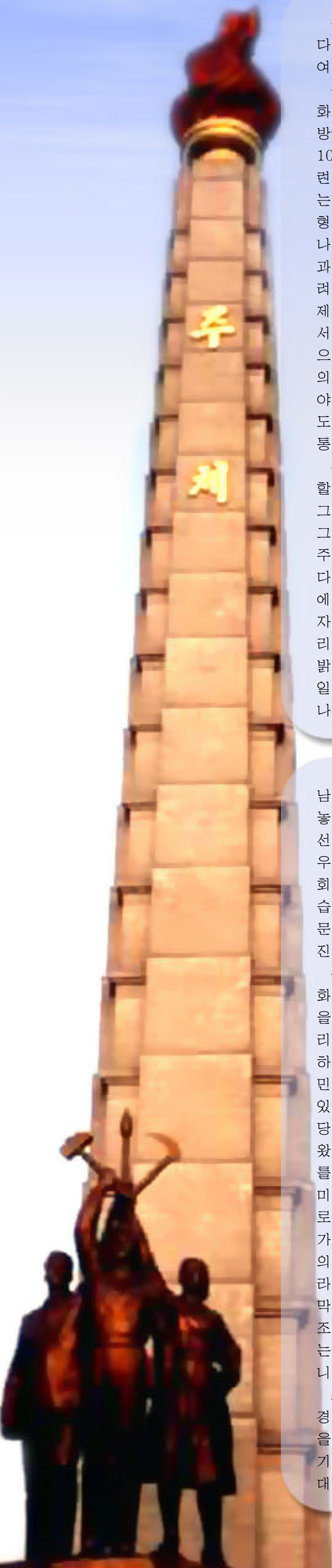
12 아리랑뉴스
• 임동원 특사에 거는 기대
• 한총련, 국방부진입 기습시위
• 민주노총, 내달 2일 ≪총파업≫ 결의
• 총학생회장단, 대학 내 공권력 투입 규탄
• 교육 투쟁,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 노무현에 대한 ≪비판적 지지≫는 없다
• 통일연대 상임대표 한상열 목사 인터뷰

15 운동강좌
• 진보정당건설에 대하여 2 (6)

16 조국통일3대현장
• 통일운동의 진두에 서시여 (3)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하여(발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노작 - 미국공산당대표단과 한 담화, 주체77(1988)년 6월 24일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방안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실행하여야 할 10대시정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선의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련방국가를 형성하여 조국을 통일하자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오래동안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여 온것만큼 조국을 통일하려면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에서 남에 사회주의제도를 강요하거나 남을 먹으려 하지 말아야 하며 남에서 북에 자본주의제도를 강요하거나 북을 먹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상대방에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려 하여서는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실행하여야 할 10대시정방침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으며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쁠럭불가담국가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10대시정방침에서 또한 나라가 통일되기전에 남조선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자본을 다치지 않으며 그 리권을 계속 보장할것이라는데 대하여서도 밝혔습니다. 지금 남조선에는 미국뿐아니라 일본, 프랑스, 서부독일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자본이 들어 와 있습니다. 남조선에 자본을 투자한 나라 사람들은 우리 나라가 통일되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비서동지가 시간을 낼수 있으면 우리 당 제6차대회보고를 한번 읽어 보는것이 나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 당 제6차대회보고를 읽어 보면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비롯하여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당의 립장을 명백히 알수 있을것입니다.

현 시기 국내외의 전반적정세는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유리하게 전변되여 가고 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점차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옳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숭미사대주의사상에서 벗어 나고 있습니다. 지난날 남조선반동들은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노릇을 하는 저들의 죄행을 가리우기 위하여 우리 공산주의자들을 그 누구의 앞잡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악선전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이 이제는 우리가 누구보다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며 국가활동에서 철저히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날 미제국주의자들을≪해방자≫,≪원조자≫로 생각하면서 ≪은인≫으로 여겨 왔지만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오래동안 강점하고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면서 침략적인 핵전초기지로 전변시키는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점차 미국의 정체를 알게 되였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가 결코 ≪해방자≫가 아니라 침략자이며 ≪원조자≫가 아니라 략탈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장본인도 다름 아닌 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였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것을 그 누구의 선전을 듣고 안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스스로 알게 되였습니다.

지금 남조선청년학생들이 민족의 자주화와 사회의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하여 떨쳐나서고 있는데 그 기세는 대단합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지난 6월 10일에 공화국북반부청년학생들과 판문점에서 만나 회담하자는 구호를 들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한 투쟁에 일떠섰습니다. 남조선반동들은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탄압하는데 6만여명의 경찰을 동원하였습니다. 우리가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모습을 록화하여 두었는데 당신들이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볼수 있을것입니다. 지금 남조선정세는 좋게 발전하고 있지만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 내고 조국을 통일하려면 아직 많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조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조선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문제는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문제는 국제관계와 밀접히 련관되여 있기때문에 고립적으로 풀기 어렵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쏘련과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을 견제하며 침략하기 위하여 남조선을 군사기지로 틀어 쥐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1, 000여개의 핵무기를 배치하여놓고있습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만 침략하려고 한다면 남조선에 자그마한 핵폭탄을 3개쯤 가져다 놓아도 될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1, 000여개의 핵무기를 배치한 목적은 우리 나라뿐아니라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을 견제하고 침략하려는데 있습니다. 조선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조선문제와 련관된 문제들이 풀려야 하며 세계진보적인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 제6차대회에서 자주, 친선, 평화가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라는것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에 따라 자주성을 옹호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 진보적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오래전부터 미국공산당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것을 희망하여 왔습니다. 우리 당과 미국공산당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조선로동당에 있어서나 미국공산당에 있어서나 다같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제국주의가 미국공산당의 투쟁대상인 동시에 우리 당의 투쟁대상이기때문입니다. 미제는 우리 나라를 분렬시킨 장본인이고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조선인민의 철천의 원쑤입니다. 조선로동당과 미국공산당은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힘 있게 벌려 나가야 할것입니다.

조선로동당과 미국공산당은 미제의 군비경쟁과 무력증강책동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벌려 나갈수 있습니다. 지금 쏘련은 핵무기를 축감하며 핵무기를 더 생산하지 않을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회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쏘미수뇌자회담에서 핵군축문제를 토의하는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핵군축을 위한 회담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도 리롭고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리롭기때문입니다. 군비경쟁은 반드시 중지되여야 합니다. 미국정부는 전략공격무기를 50% 축감할데 대한 쏘련의 제의에 동의하여야 하며 핵무기생산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쏘련과 미국이 핵군축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하고 있는 조건에서 남조선에서 핵무기와 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리려고 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미국공산당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일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미국의 진보적인사들을 비롯한 미국인민들과 귀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과 민족의 자주화,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잘 알려 주면 그것이 우리 나라의 통일에 큰 도움으로 될것입니다. 미국에 80여만의 조선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을 잘 알려 주면 그들이 조국통일을 적극 지지하여 나설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 있는 동포들과의 사업을 일본에 있는 동포들과의 사업처럼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공산당이 미국에 살고 있는 조선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 그들이 우리의 위업을 지지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 나서도록 도와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당신들이 우리 공화국과 미국사이의 회담을 촉진하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공화국과 미국사이의 회담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공화국과 미국 그리고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하든지 하여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우리와 남조선이 불가침선언을 채택할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우리에 대한 오해로부터 3자회담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가 우리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것은 남조선반동들의 말만 듣거나 조선문제와 관련이 없는 일부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그릇된 말만 들어 왔기때문입니다. 남조선반동들은 미국정부에 조선인민의 진실한 념원을 그대로 말하여줄수 없습니다.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면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정부의 오해를 풀어야 하며 그러자면 우리와 미국정부가 마주 앉아야 합니다. 쌍방이 마주 앉지 않고서는 오해를 풀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와 미국사이에 대화를 할수 있는 창구를 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국정부와 공개적으로도 대화를 할수 있고 비공개적으로도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공개적으로 하든 비공개적으로 하든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정당한 립장을 미국정부와 직접 이야기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와 미국사이의 불신임을 해소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려고 합니다.

(끝)

2권 제4장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나날에

1. 손정도목사
2. 준엄한 봄
3. 카륜회의
4.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5. 조선혁명군
6. 혁명시인 김혁
7. 1930년 여름
8. 두만강을 건너
9.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10. 잊을 수 없는 사람들

10. 잊을 수 없는 사람들(1)

나는 언제인가 평양에서 까스뜨로 동지를 만났을 때 그와 함께 항일혁명시기의 투쟁을 두고 장시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때 까스뜨로 동지는 나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는데 그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무장투쟁을 하면서 식량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하는 것이였다. 나는 그에게 적의 식량을 빼앗아 해결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인민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식량을 대주었다고 하였다. 청년학생운동과 지하활동을 할 때에도 인민이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고 잠자리를 마련해주었다. 상해림시정부나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와 같은 독립군단체들은 저마다 법을 만들어내여 동무들에게서 의연금도 받아내고 군자금도 모집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혁명활동에 돈이 필요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세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법을 제정할 수 없었다. 인민을 그 어떤 법이나 규정에 얽매어놓고 장부책을 끼고 다니며 누구네 집에는 얼마, 누구네 집에는 몇 원 하는 식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원래 우리의 리념에 맞지 않았다. 인민이 주면 먹고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우리의 립장이였다. 하지만 인민은 어떤 정황에서나 생사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었다. 인민이 각성되고 동원되어 언제나 혁명가들을 자기의 친자식처럼 돌보아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인민을 믿었다. 인민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끼니를 굶어본 적이 한번도 없었다. 우리가 빈주먹을 들고 령으로부터 투쟁을 시작하여 승리를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인민이 우리를 지지하고 성원한 데 있었다. 고유수의 현정경, 김보안, 승춘학, 카륜의 류영선, 류춘경, 황순신, 정행정, 오가자의 변대우, 곽상하, 변달환, 문시준, 문조양, 김해산, 리몽린, 최일천 등은 남만과 중부만주 지방에서 우리를 충심으로 도와준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인민들은 자기들이 죽을 먹을 때에도 우리에게만은 밥을 해먹이면서 극진하게 대우해주었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페를 끼치는 것이 송구스러워 어떤 때에는 일이 바빠 밤을 밝힌다는 핑계를 대고 학교숙직실에서 자기도 하였다. 카륜에서 진명학교 교실이 우리의 숙소로 리용되었다면 고유수와 오가자에서는 삼광학교, 삼성학교 교실이 우리의 숙박소 구실을 하였다.

현하죽(현정경)

내가 삼광학교 교실에서 목침을 베고 잘 때면 현균이 찾아와 성을 내면서 내 팔을 잡아끌었다. ≪ㅌ·ㄷ≫의 성원이며 조선혁명군 대원인 현균은 똑똑하고 대바르고 인정이 깊은 사람이였다. 현균의 형 현화균은 고유수에서 농민동맹사업을 하였는데 우리 일을 많이 도와주었다.

두 형제가 다 우리의 조직에 망라되어 일하는 사람들인데다가 아버지까지 독립운동을 하는 분이어서 그 집에서는 우리를 각별히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현균의 아버지 현하죽은 독립운동자들 속에서 상당한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였다. 하죽이란 호이고 그의 본명은 현정경이였다. 고유수 사람들은 본명대신 그를 하죽선생이라고 불렀다. 그 당시 현하죽선생이라고 하면 만주지방에 살고 있는 조선동포들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아버지도 생전에 현하죽선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였고 또 그와 깊은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단순한 친구로서가 아니라 독립운동에 뜻을 같이한 동지로서 자주 접촉하고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뜨거운 우애심을 가지고 서로 존경하고 받들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현하죽선생은 통의부시절의 중앙법무위원장이였고 정의부시절의 중앙위원이였으며 국민부시절에는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유일당이라고 부르던 조선혁명당의 정치부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는 공산주의에 대한 리해도 깊었고 일상생활에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청년들을 동정하였으며 그들과 잘 어울리었다.

김혁, 차광수, 박소심 동무들이 류하지방에서 사회과학연구회를 내오고 곳곳에 반제청년동맹조직을 꾸리고 있을 때 그는 청년들의 계몽을 위해 강사로 자주 출연하였다. 왕청문 학원시절과 화흥중학교 시절에 현하죽선생의 강의를 받아본 사람들이 그후 그를 자주 회상하였다.

내가 고유수에 갈 때마다 현하죽선생은 나를 자기 집에서 재우곤 하였다.

≪큰 아버지네 집에 온셈치고 마음 푹 놓게.≫

선생이 나에게 늘 하는 말이였다. 선생의 나이가 우리 아버지보다는 여라문살 우였다. 나는 그 집에서 열흘이나 스무날, 지어는 한달이상씩 묵으면서 군중들과의 사업을 하였다. 어느해던가는 고유수에서 현하죽선생의 가족들과 함께 5월 단오까지 쇠였다.

사실 그때 형편에서 손님을 하루도 아니고 몇주일씩 재우며 밥을 해먹인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농사를 지어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고 얼마안되는 식량을 가지고 혁명가들에게 밥을 해먹이고 나면 집안사람들은 죽물도 변변히 먹을 수 없었다. 현하죽선생의 집에서는 그때 나에게 입맛이 당기는 음식을 만들어주느라고 있는 성의를 다하였다. 어떤 때에는 닭을 잡아주고 두부와 비지도 만들어주고 근대국도 끓여주었다.

그 집안 녀자들이 두부를 앗느라고 망질을 할 때면 나도 팔을 걷어올리고 달려들어 망돌을 돌리었다. 우리가 망돌 앞에 앉아 일을 거들어줄 때마다 스물 두세살쯤 나보이는 현하균의 아내 김순옥이 몹시 수줍어하면서 얼굴을 쳐들지 못하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현하죽 선생은 민족주의단체인 국민부에 소속되어있으면서도 자기가 국민부내의 혁신파라는 것은 숨기지 않았으며 장차 공산주의운동을 하겠다는 것까지도 드러내놓고 말하였다.

내가 고유수를 떠난 다음 현하죽 선생이 국민부내부에서 벌어진 집안싸움을 피해 서안으로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장학량의 군대가 그곳으로 가니 선생도 그에게 기대를 걸고 따라간 것 같았다. 장학량이 배일감정이 강하였기 때문에 그의 우산밑에서 반일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만주사변을 전후하여 동3성 일대에서 활동하던 조선의 많은 독립운동자들이 상해나 서안, 장사 같은 속으로 활동무대를 옮기였다.

조국이 해방된 후 외국방문의 길에 올라 렬차나 비행기를 타고 중국동북지방을 지나갈 때마다 나는 만주의 낯익은 산천을 바라보며 고유수를 생각하고 현하죽선생을 생각하고 선생의 후손들을 생각하였다. 사람이 신세를 지기는 쉬워도 갚기는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1990년 봄에 뜻밖에도 현하죽선생의 후손들과 감격적인 해후를 하였다. 현하죽선생의 맏며느리 김순옥녀성은 내가 자기 집에 가서 식사할 때 사용하던 놋그릇과 나에게 두부를 만들어줄 때 돌리던 망돌을 60년동안이나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혁명박물관에 보내주었다. 그 사연을 담은 글이 길림에서 조선사람들이 발간하는 ≪도라지≫라는 잡지에 실리었는데 우리 ≪로동신문≫이 그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였다.

60년동안 소식을 모르던 은인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으니 나로서는 감회를 억제할 수 없었다. 어느때든지 나라가 독립되면 고유수에서 진 빚을 단단히 갚으려고 하였는데 만나서 내 손으로 소박한 음식상도 차리고 회포도 나누고 싶은 심정이 간절하였다. 김순옥도 죽기전에 나를 만나봤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1990년 3월에 나의 명의로 김순옥을 초청하였다. 막상 만나고보니 그는 80고령으로 아쉽게도 로환이 심하여 걸음 제대로 옮기지 못하였다. 김순옥이 우리 나라로 나올 때 그의 후손들이 여섯명 따라왔는데 나에게는 다 서름서름한 초면의 얼굴들이였다. 내가 그들을 만나는 자리에는 현균의 아들도 참가하였다. 그의 입모양이 아버지의 입모양과 신통히도 비슷하였다. 입모양이라도 비슷하니 이미 고인이 된 현균이 다시 살아서 나를 찾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김순옥일행을 외국 귀빈들이 리용할 숙소로 지어놓은 초대소에 들게 하고 한달가량 머무르면서 고국편답을 하게 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김순옥 녀성이 귀가 어두워서 남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였다. 발음도 똑똑치 못하고 기억력도 상당한 정도로 나빴다. 그처럼 생사를 몰라 궁금해하던 은인들 중 한 사람을 60년만에 기적적으로 만났으나 나는 그 은인과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보충해주고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보충해주며 장시간 고유수시절을 회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대가 허물어지니 아쉬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김순옥

그의 후대들도 현하죽선생의 운명과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현하죽선생이 조선독립을 위해 어떻게 싸웠으며 우리의 혁명사업을 어떻게 도와주었는가 하는 데 대하여 상세히 이야기해주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생의 경력을 잘 알고 있는 나의 의무이기도 하였다. 같은 피줄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선렬들의 투쟁업적을 잘 알고 그것을 진심으로 귀중히 여길 줄 아는 후대들만이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세대들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이어갈 수 있다.

나는 김순옥을 만나는 자리에서 공국옥과 오가자에 ➡

서 우리의 혁명활동을 많이 도와준 문조양, 문숙곤도 함께 만나보았다.

공국옥은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를 대신하여 3년동안 베감투를 쓰고 몽상을 입은 공영의 딸이다. 어느해였던지 길림 육문중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방학이 되어 무송에 들리니 얼굴이 흠집이 생겼다고 남편한테서 소박을 당하던 공영의 안해가 아이를 업고 우리 집에 와 있었다. 그 아이가 바로 공국옥이다.

나는 해방직후 평양에서 농민동맹회의를 지도하다가 그 회의에 대표로 참가한 벽동사람을 만나 그에게 공영의 유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가고 물었다. 공영이 벽동출신이였기 때문에 그의 미망인과 딸이 고향에 있을 수 있다는 짐작이 들어서였다.

그 대표는 벽동에 공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공영의 가족이 살아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 대답을 듣고 몹시 락심하였다. 다른 유가족들은 나타나는데 공영의 유가족만은 행방조차 알 수 없으니 마음이 허전했다.

그 당시 우리는 만경대에다가 혁명자 유가족학원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양공설운동장에서 시민들과 개선인사를 나누고 20년만에 조부모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고향집에 돌아오니 소학교시절의 동창생들이 찾아와서 한 때 우리 아버지가 교사로 일하던 순화학교자리에 나의 이름을 딴 중학교를 하나 세우자고 제기하였다. 만경대는 김장군이 태어난 유명한 고장인데 학교를 하나 큼직하게 짓고 장군의 이름을 붙여 ≪**김일성** 중학교≫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면서 나를 설복하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나의 향촌에는 중학교가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지난날 수많은 애국자들이 나와 함께 손에 무장을 잡고 산에서 싸우다 희생되었다. 그들이 눈을 감으면서 앞으로 조선이 독립되면 자기네 아들딸들을 공부시켜 훌륭한 혁명가로 키워달라고 나에게 부탁하였다. 나는 그때부터 그들의 유언대로 조선이 독립되면 꼭 동지들이 남겨놓고 간 자제들을 공부시켜 자기 부모의 뜻을 잇도록 해야겠다고 늘 생각해왔다. 조국을 찾고보니 그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만경대에는 중학교가 아니라 혁명가의 유자녀들을 키우는 학원을 세워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동네사람들은 혁명가유가족이 얼마나 되는가, 무슨 유자녀가 그렇게 많아서 학원까지 세우겠는가고 하였다. 당, 행정의 중요직책에서 일하는 간부들 가운데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렬사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희생되었는지 가늠조차 못하고 있었다. 이국의 산야와 강하에 전우들의 시신을 수없이 묻어온 나로서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토지개혁 후 첫 수확을 해서 농민들이 나라에 바친 애국미를 밑천으로 삼가 만경대에 혁명자유자녀학원을 세웠다. 학원에서 공부할 유자녀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수많은 일군들이 국내각지와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되었다. 그때 수백명의 유자녀들이 중국에서 나왔다. 지금 우리 당 중앙위원회에서 정치국성원으로 사업하고 있는 일부 동무들도 그 무렵에 림춘추동무를 따라 조국에 나왔다. 어떤 유자녀들은 물감장사나 담배장사 같은 것을 하며 살다가 만경대에 혁명학원이 설립된다는 소식을 듣고 제 발로 걸어서 우리를 찾아왔다. 그런 아이들 가운데는 독립군의 후손들도 있었고 로조나 농조와 같은 조직들에서 반일투쟁을 하다가 희생된 애국자들의 자제들도 있었다. 그런데 공국옥이만은 어데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평안북도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공영의 유가족들의 행처를 수소문하였으며 그곳 일군들에게 그들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원아들과 같이 명절을 쇠려고 학원에 내려가 그들이 명랑하게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볼 때면 산나물보따리를 이고 짚신을 끌면서 소남문거리의 우리 집으로 찾아오군하던 공영의 안해의 얼굴과 어머니의 등에 업혀 주먹을 빨던 공국옥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짜릿한 심회를 금할 수 없었다.

독립군중대장 김보안

나는 1967년에야 공국옥을 찾아냈다. 그때는 이미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였다. **김일성**이 김성주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공국옥의 어머니가 인차 나를 찾아왔을 것이다. 그 녀인이 **김일성**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다가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자기 남편은 독립군이였으니 다르게 보지 않을가하여 자식들에게도 아버지가 무슨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공국옥을 찾은 다음 그를 고급당학교에 보냈다. 공국옥은 그 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시당과 철도부사적관에서 일하였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아 년로보장을 받으며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고유수의 김보안도 현하죽선생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의 친구였다. 그는 독립군에서 중대장까지 한 사람이다. 김보안은 내가 현하죽선생의 집에만 가고 자기 집에는 한번도 들리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였다. 우리 동무들이 집에 찾아가면 그는 자기와 김형직은 보통사이가 아니고 또 자기도 성주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지 않는데 어째서 그 사람은 자기 집에 한번도 찾아오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런 말을 들은 다음부터 나는 고유수에 가면 김보안의 집에 꼭꼭 들리군 하였다. 김보안은 약국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얼마간의 돈을 우리가 운영하는 삼광학교 후원비로 내군 하였다. 그는 교육열이 높은 사람으로서 청소년들을 계몽시키는 사업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삼광학교에 나와 강연을 해달라고 초청하면 그 초청에 기꺼이 응하였다.

류춘경

김보안은 고유수사람들이 돈계산을 할 줄 모르니 이런 까막눈들을 가지고 조선독립을 어떻게 하겠는가고 개탄하였다. 지금 사람들은 어른들이 돈계산을 하지 못했다면 잘 믿지 않겠지만 그 당시 중국사람들과 길림에서 살고 있던 조선의 이주민들 중에는 돈계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성에서 발행되는 돈이 다르고 현에서 류통되는 돈이 서로 다른데다가 길림관채니, 봉천다양이니, 길림소다양이나, 은다양이니 하는 여러 가지 돈들이 저마끔식 달라서 글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장거리에 가도 돈계산을 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야학에 농민들을 불러다놓고 산수시간에 돈계산법을 배워주었다. 돈계산도 할 줄 모르는 까막눈들이라고 흘겨보던 사람들이 가감승제까지 척척하는 것을 보고 김보안은 ≪아무렴 그렇겠지. 조선사람이 원래 머리야 명석하지≫하고 흡족해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무식자로부터 유식자로 되는 과정을 보는 것이 재미난다.≫고 하면서 야학도 참관하고 삼광학교에 나와서 수업참관도 하였다. 삼광학교의 고등학생들은 하나같이 지혜롭고 총명하였다. 그 학생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인상깊게 남아있는 인물은 류춘경과 황순신이다.

그들은 둘 다 카륜의 혁명조직들에서 추천되어온 학생들이였다. 류춘경의 아버지 류영신은 진명학교 교원으로 일하면서 우리의 혁명사업을 많이 도와주었다. 그 당시 류춘경, 황순신 동무들의 나이는 14-15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는 고유수에 갔다가 카륜이나 길림으로 돌아갈 때 그들에게 무기운반을 부탁하군 하였다. 군벌들이 녀자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덜하였다. 류춘경와 황순신은 언제나 그 부탁을 성실하게 리행하였다. 그들은 치마밑에 무기를 감추고 50메터쯤 떨어져서 우리의 뒤를 따르군 하였는데 길가에서 군벌들이 우리에 대해서는 여러번 조사를 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주의를 돌리지 않고 무심히 통과시켜주군 하였다.

황순신은 해방후 조국에 돌아와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는 삼광학교 시절의 소년탐험대원답게 일을 본때있게 하여 다수확농민으로 이름을 날리며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 속에서 한생을 값있게 살아왔다. 전후시기에는 한동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도 활약하였다.

류춘경은 만주에서 여러 지방으로 떠돌아다니며 살다가 리관린처럼 인생말년을 조국에서 보내고 싶다고 하면서 1979년에 귀국하였다.

황순신처럼 젊은 나이에 귀국했더라면 그도 이름있는 녀성활동가가 되어 사회와 인민을 위해 좀더 활력있는 후반생을 보냈을 것이다. 삼광학교시절의 류춘경은 녀학생들 중에서 글도 제일 잘 쓰고 연설도 제일 잘하고 두뇌도 제일 명석한 전도가 촉망되는 소녀였다.

우리가 안도에서 유격대창건준비사업을 하고 있을 때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내여 내가 있는 곳에 와서 투쟁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그때가 무장투쟁을 시작하려고 서두르던 시기이고 또 일단 무장투쟁을 시작하게 되면 녀자들이 남자들을 따라다니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안도에 오라는 련락을 보내지 못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녀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무장투쟁에는 적합치 않다고 여기였다. 귀국당시 류춘경의 나이가 50살 정도만 되어도 우리는 그를 공부시켜 사회활동에 참가시키었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날 혁명투쟁에 직접 참가했거나 관여한 사람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나이가 좀 들어도 그들을 공부시키고 알맞은 자리에 배치하여 정치활동을 시키는 원칙을 세웠다. 아무리 총명하고 쓸모있는 사람도 오래동안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에 파묻혀있으면서 사고능력이 감퇴하고 세상물정에 어두워지며 인생관에 녹이 쓰는 법이다.

해방 후 적지 않은 투사들과 혁명투쟁연고자들이 적재적소에 등용되지 못하고 파묻혀있었다. 종파분자들은 항일투사들이 경력은 좋지만 무식해서 쓸모가 없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그들을 간부로 등용시키지 않았다. 무식하면 공부를 시켜서라도 제구실을 똑똑히 할 수 있도록 강심을 먹고 키워야겠는데 배척하고 외면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혁명유자녀들이나 혁명투쟁연구자들을 찾아내면 그들을 고급당학교나 인민경제대학 같은데서 공부시켜 그들의 준비정도에 따라 간부로 등용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공부를 하지 않고 조직생활을 하지 않으면 혁명을 오래 한 투사들도 시대의 락오자가 되고 만다.

수많은 투사들과 그들의 유자녀들, 항일혁명투쟁방조자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당과 국가의 유능한 지휘성원으로, 저명한 사회활동가로 자라났다. (내일 계속)

고유수

일화

혁명적의리

1997년 4월 **김일성**주석의 탄생 85돐과 조선인민군창건 65돐을 맞으며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열병식이 끝난 날이였다.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인민군대에서 진행한 열병식이 전반적으로 잘되였지만 교훈을 찾을 문제들도 적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인민군대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면서 수령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처럼 항일혁명투사종대, 전쟁로병종대, 영웅종대를 편성하여 맨앞에 세우는것으로 열병종대를 편성하였댔는데 이것은 잘못되였다고, 수령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에는 그들을 열병종대의 맨앞에 내세워 수령님앞에서 열병행진을 하여도 일없겠지만 지금은 수령님께서 계시지 않기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안 계시는 오늘 우리는 수령님을 따라서 천만리, 당을 따라서 천만리를 걸어 온 항일혁명투사들과 전쟁로병들, 영웅들을 적극 내세워 주고 만사람의 축복을 받게 하여야 하며 열병대오의 인사를 받게 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김정일**장군께서는 선군정치의 나날에도 혁명의 1세대인 항일혁명투사들과 혁명의 2세대인 6.25전쟁로병들을 존대하고 내세우며 인민군군인들이 그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투쟁위훈을 본 받도록 크나큰 의리심을 베풀고 계신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오늘의 영웅전사들도 높이 내세우고 그들의 위훈을 길이 빛내이며 전군이 그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도록 의리 깊은 조치를 취해 주고 계신다.

1996년 4월 어느 날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던 장군님께서는 길영조영웅에 대하여 또다시 회상하시면서 길영조영웅이 비행기에서 탈출하였다면 얼마든지 살수 있었다, 그러나 비행기가 그대로 떨어 지면 혁명의 수뇌부가 위험에 처할수 있었으므로 그는 비행기를 끝까지 안전한 곳에 떨어 지도록 조종하였다, 그는 자기의 희생으로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한 영웅이다, 나는 현장에서 길영조영웅의 희생적인 투쟁을 지켜 보고 그를 영웅이라고 하였다고 감명 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길영조는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기지에 착륙하려고 시내상공을 선회하던중 불의의 비행기고장으로 폭파위험에 처하자 최고사령부가 위치한 지역을 벗어 나기 위하여 탈출하지 않고 비행기를 끝까지 조종하여 바다에 떨어 지고 자폭하였던것이다.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사령부를 결사옹위하기 위하여 자폭한 길영조비행사의 영웅적행동을 높이 평가하시여 그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해 주시고 그가 소속되여 있던 구분대를 길영조비행대대로 명명해 주시였으며 그의 모교에 반신상을 세워 주시였다. 그분께서는 두달전인 2월 어느 날에도 몸소 길영조비행대대를 찾으시여 그가 쓰던 학습장과 수첩들을 한장한장 번져 보시면서 그가 평소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것이 알린다, 평소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하였기때문에 생사를 판가리하는 위험한 순간에 자신의 생명보다 최고사령부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고 영웅적인 행동을 할수 있었다고 뜻 깊게 말씀하시였다.

또한 그가 남긴 자작시 ≪…땅에서 받은 삶을/하늘에서 빛내여 갈 신념/날이 갈수록 더욱 굳어 지나니/…/영광의 길에 뿌려지는/은빛 꽃보라로 흩날리리/…≫도 들어 주시면서 길영조가 쓴 시 ≪가장 빛나는 별이 되리≫에는 그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그대로 담겨 져 있다고 높이 평가해 주시였다.

이렇듯 길영조에게 온갖 영광을 다 안겨 주시고 그가 소속되였던 비행대대까지 몸소 찾으시여 그의 충성의 삶을 더듬어 주신 장군님께서는 4월의 그날 또다시 그를 떠올리시며 ≪길영조영웅은 혁명의 수뇌부를 수호하고 전사하였습니다. 그는 견결한 조선의 영웅입니다. 길영조영웅이 발휘한 견결성, 희생성, 영웅성은 모든 군인들과 일군들이 따라 배워야 할 정신도덕의 귀감입니다.≫라고 높이 일러 주시고 내세워 주시는것이였다.

터지는 수류탄을 몸으로 덮고 병사들을 구원한 김광철영웅, 불길속에서 항일의 혁명전통이 수록되여 있는 혁명사적지의 구호나무들을 목숨 바쳐 지켜 낸 17명의 불사조영웅들,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 청춘을 서슴없이 바친 영웅건설자들을 비롯하여 90년대의 영웅들을 높이 내세워 주고 계시는것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했던 혁명전사들에 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과 의리의 발현인 것이다.

송시

승리의 날은 오리라

올레그 나우무브

조선의 대지 위에 자랑차게 휘날린다
조선로동당의 붉은 깃발
주체의 태양아래 강성부흥 조선
변함 없이 사회주의 건설해 간다
김정일장군님 주위에 굳게 뭉쳐
시련을 이겨 나가는 조선민중
천리마의 진군 힘차게 하니
강성대국은 건설되리라

민중들 하나로 뭉쳐 조선은 강하고
승리에 대한 확신
그 어떤 원수도 꺾지 못하리
불패의 조선로동당
새로운 위훈에로 부른다
가는 길 험난해도
천리마는 더 높이 나른다
김정일장군
새 세기로 조선을 이끄신다

김정일
그분은 영광
김정일
그분은 혁명의 기수
그분이 이끄시는 길에 승리만 있다
그분께 끝없는 충모, 존경 드린다
그분의 존함 온 나라 가정에 행복을 주고
민중들 투쟁에로 고무해준다

김정일
그분은 세계 벗들의 마음의 기둥
사회주의 위업에 대한 충실성의 귀감
김정일
그분은 용감성의 상징
원수들 그분 앞에 벌벌 떠나니

승리에로의 길은 멀고 간고한데
그분 계시면 무섭지 않다
더욱 굳건해지는 사회주의조선
민중들은 **김정일**장군님 높이 모시고
새 세기 여명 마중 간다
조선은 온갖 시련 이겨내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라

흠모

려용의 여신

≪려용의 여신≫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그이의 탄생 46돐에 즈음하여 일본 호와이도라인 **김일성**주석노작학습회 회장 시라이시 이쯔에가 드린 귀중한 선물이다.

선물은 2명의 근로여성들이 두 손을 모아 높이 받쳐들고 있는 높이 750㎜, 무게 14kg이나 되는 벽시계와 그것을 힘있게 받들고 있는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든 받침대로 되어있다. 이 선물의 이름은 벽시계를 받쳐들고 있는 여성들을 아름다운 마음과 용모를 지닌 여신에 비교하여 ≪려용의 여신≫이라고 지었다 한다.

특수인조대리석을 금물로 채색한 시계의 틀, ≪일본 호와이도라인 **김일성**주석노작학습회 회장 시라이시 이쯔에. 1988.2.16≫이라는 글발이 새겨져 있는 받침대,

자주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발걸음인양 힘있게 흔들리는 시계추…

참으로 선물은 인류가 시대의 향도성으로 높이 칭송하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금처럼 변함없이 신뢰하고 높이 모시며 시계의 초침처럼 한 초의 드팀도 없이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자주의 한길 따라 힘차게 전진하려는 시라이시 이쯔에 회장과 회원들의 불같이 뜨거운 마음을 담고 있다.

이처럼 보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선물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시라이시 이쯔에 회장과 회원들의 뜨거운 흠모의 마음이 그대로 어려있다.

시라이시 이쯔에는 1971년 12월부터 노작학습회를 조직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발표하신 노작과 문헌들을 깊이 학습하고 그것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었다.

그는 자기 배인 ≪고와마루≫와 ≪하꾸요마루≫의 가장 밝은 방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모시였다. 특히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마음을 안고 1971년부터 오늘까지 무려 8회에 걸쳐 20여점의 희귀한 선물을 마련하여 그이께 삼가 드리였다. 1984년 2월 16일에는 가족과 함께 20여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홍매≫를 꽃 피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선물로 드리었다.

1987년 여름 어느 날이었다.

방금 먼 항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학습회성원들을 불러놓고 자기의 심중을 이렇게 말하였다.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를 인류가 낳은 가장 걸출한 위인중의 위인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그이를 끝없이 흠모하고 존경하고 있지 않소. 나의 이 심장을 오래 전부터 틀어잡은 것은 희세의 걸출한 위인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에 대한 절대적인 흠모의 마음이요. 나는 우리 시대의 지향인 이러한 흠모의 마음을 담아 귀중한 선물을 만들 것을 제의하고 싶소. 자주시대의 가장 걸출한 위인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들의 충성심은 금처럼 변함이 없고 시계처럼 드팀이 없다는 뜻으로 우리가 선물로 올릴 시계의 이름을 ≪려용의 여신≫이라고 짓는 것이 어떻소.≫

그의 이 열렬한 호소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찬성을 받았다. 그날부터 그들은 일본에서 가장 우수한 시계공장에 찾아가 전문일꾼들과 함께 낮과 밤을 보내었다. 시아리시 이쯔에는 자기들의 정성이 깃든 선물을 배에 싣고 와 우리의 한 일꾼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소박한 선물에는 온 인류가 시대의 위대한 향도성으로 높이 칭송하며 따르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에 대한 우리 학습회 성원들의 열렬하고 절대적인 흠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학습회 성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각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용납할 수 없는 국정원의 폭압만행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국정원은 지난 19일 충남 천안지역에서 민간통일운동단체인 ≪통일로 가는 길≫에 가입해 활동하던 이재윤씨를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및 이적표현물 소지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를 씌워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각계 민중들에 대한 용납못할 도전행위로써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아시다시피 외세에 의해 타율적으로 강요된 국토분단으로 인해 우리 민중과 겨레는 장장 반세기이상이나 온갖 불행과 가슴 아픈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줌도 못되는 분열주의집단을 제외하고 우리 겨레와 민중은 모두 조국이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실현을 위해 마음을 쓰며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투쟁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더욱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으로 굽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우리 민중들도 이러한 범민족적인 통일운동에 합세해 경향 각지에서 각이한 이름을 가진 민간통일운동단체들을 내오고 여러 가지 통일운동을 힘차게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윤씨도 민족의 일원으로써의 책무를 느끼고 양심의 호소에 따라 민간통일운동단체인 ≪통일로 가는 길≫에 망라되어 민족의 통일위업을 실현코저 열성껏 뛰었던 것입니다. 이씨의 이러한 활동은 더없이 의롭고 정당한 것으로써 마땅히 높이 찬양받아야 할 애국애족적 소행으로써 결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그에게 당치않게 극악한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및 이적표현물 소지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를 씌워 연행하는 용납못할 탄압만행을 자행한 것입니다.

국정원은 이씨를 잡아가두기 위해 그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민간통일운동단체의 모임자료와 컴퓨터, 각종 자료와 서적 등을 압수하는 소동을 피웠던 것입니다.

통일운동에 나선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탄압하는 것은 국정원이 바로 반통일폭압기구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통일하고 함께 살 이북을 소개선전했다고 해서 죄인으로 몰아 탄압하는 이러한 폭압기구는 어떤 명분으로도 그 존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기 국정원이 통일인사들뿐 아니라 반미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를 위해 활동한 수많은 민주애국인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해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정원이야말로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위업수행을 방해하는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제반 사실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국정원을 없애버리지 않고서는 우리 민중이 통일운동을 활성화할 수 없고 자주, 민주, 통일위업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국자들이 진실로 이 땅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바란다면 국가보안법철폐와 함께 국정원을 당장 해체해야합니다.

각계 애국민중은 ≪국가보안법철폐!≫와 ≪국정원해체!≫구호를 높이 들고 모두 한데 굳게 뭉쳐 완강히 싸워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5일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3월 25일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칭송
한민족아리랑연합회

한민족아리랑연합 김성준씨가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그는 얼마전 동료들에게 평양에서 개막되게 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준비작업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북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사상예술성에서나 규모에서나 손색없는 최고의 걸작으로 칭송되어왔다. 이번 ≪아리랑≫공연에서도 10만여명의 청소년학생들이 출연해서 온갖 조화를 다부린다고 하니 상상만해도 황홀감을 금할 수 없다. 창조와 예술의 천재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셨기에 이북은 세계적인 걸작품을 펴낼 수 있는 예술의 왕국으로 찬양되고 있다.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 장군님을 통일광장에 높이 모시고 온 겨레가 함께 모여 ≪통일아리랑≫공연을 봤으면 좋겠다.≫

발전소민영화 철회 촉구
42개 노동, 시민단체

전국민중연대와 민주노총 등 42개 노동, 시민단체는 23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정부측에 발전소민영화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발전노조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면서 국가는 기간산업을 팔겠다는 정책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어 청와대부근에서 집회를 가진뒤 명동성당앞까지 행진했습니다.

제2 공무원노조출범식 진행

제2 공무원노조출범식이 23일 고려대에서 열렸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노조원 280여명은 23일 고려대에서 집회를 갖고 출범을 공식선언했습니다.

서울대에서 열릴 예정이였던 출범식은 경찰의 원천봉쇄로 장소를 변경해 고려대에서 열렸습니다.

경찰은 병력 800여명을 투입해 집회를 악랄하게 탄압하고 참가자전원을 연행하는 폭거를 감행했습니다.

지난번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처음으로 공무원노조출범을 선언한뒤 두번째로 출범을 선언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정부와의 근로조건 직접협상 등 완전한 노동3권의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은 2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노조위원장을 선출하고 대의원선거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고려대생 100여명은 경찰의 강제해산과 폭력진압에 항의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미군장갑차 몸으로 막아 나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소속 회원들이 22일 포항시 영덕군의 한 해변가에서 상륙훈련에 돌아치는 미군장갑차들을 몸으로 막아나서며 격렬한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호전광들은 바다에 미국과 한국 전투함선들을 띄워놓고 오키나와주둔 미군 2000여명을 태운 수륙양용장갑차들을 해안으로 상륙시키면서 전쟁열을 고취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위자들은 ≪한반도 전쟁정책 등 한미군사훈련중지하라!≫고 쓴 플랭카드와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훈련중지≫, ≪전쟁반대≫, ≪핵반대≫라고 쓴 피켓을 든채 상륙 장갑차들을 정면으로 맞받아나가며 결사적인 항의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장갑차들이 해안으로 상륙하자 육탄으로 막아나서며 해병대와 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시위자들은 군사훈련이 끝날때까지 ≪주한미군철거가≫를 부르며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성명서를 통해 한미군사당국이 실시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은 이 땅에 기어코 핵전쟁의 불길을 붙이려는 전쟁광부시와 사대매국노들의 전면적인 북침전쟁연습이라고 규탄하고 우리는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국민과 함께 핵전쟁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연합의 한 인사는 이번 군사훈련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섰다며 전지역에서 해상시위 등 다양한 형태로 군사훈련저지를 위한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사격장관련 소송
경기도 파주

경기도 파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격장의 땅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4000만원의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73년부터 자신들 소유의 땅 8만2000여평을 미군측에 사격장으로 넘기면서 보상을 하지 않은채 출입을 통제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미군부대가 얻은 부당이득 가운데 우선 4000만원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상품불매운동전개
한총련

한총련은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센타내 무역회관앞에서 가진 전국대학생 미국제품불매운동 기자회견에서 주권회복을 위해 미국상품불매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총련은 불매운동은 민족자존심을 회복하고 주권을 바로 세우고저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것이라며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 미국산 제품구매를 대학에서 완전히 근절하는 등 앞으로 범국민적 운동으로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책동 반대배격하자

최근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대통령 부시를 비롯해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라이스, 미국방부 부장관 월포비츠 등 미행정부내 우익보수파와 호전분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있지도 않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설을 운운하면서 미국은 북을 비롯한 어떤 나라도 대량살상무기로 자유를 위협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니 이 문제과 관련해 지금은 머뭇거릴 시점이 아니라며 대북강경자세를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부시행정부의 출범초기부터 대북적대시강경정책을 들고 나온 미국은 9.11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때를 만난듯이 북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의 도수를 더욱 높여왔습니다. 특히 아프간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있지도 않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위협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주한미군의 무력을 현대화하고 최신예 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매일과 같이 벌임으로써 한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책동은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북침을 목적으로 한 미군 수만명을 포함해 한미연합군 50만명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침략과 전쟁준비책동을 일삼으며 북을 군사적 힘으로 제압하려는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책동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되자 공동선언이행을 파산하고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며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대한반도정책과 대북적대시정책, 반북고립압살책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책동을 허용, 묵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 미국이 도발한 침략전쟁에서 우리 민족, 민중이 커다란 참화를 입게 될 것이며 이 땅이 초토화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만큼 우리 민족, 민중은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책동으로 인해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온갖 불행과 고통, 재난을 강요당할 이 엄중한 사태앞에서 결코 이를 방관시하거나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각계층 민중은 북에 대한 미국의 강경압살책동이 곧 이남 민중에 대한 강경압살책동이라는 인식을 똑바로 가지고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책동으로 우리 민족이 공멸당할 위험천만한 범죄적 책동을 반대배격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무엇보다도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나 미국의 사소한 대북강경압살책동도 예의주시하고 이를 즉각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반미투쟁을 끊임없이 벌여나가야 합니다.

민중의 뭉친 힘은 투쟁승리의 기본 열쇠입니다. 자주를 지향하고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각계층 민중은 반미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뭉쳐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반미운동단체들은 물론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도 이 투쟁에 합류해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전국 각지에서 반미투쟁의 열풍이 끓어번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단체, 모든 국민들이 서로 연대연합하고 공동으로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반미반전통일운동을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당면해서 미제침략자들이 이 땅에서 벌여놓은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을 반대배격하는 투쟁에 총사력을 경주해 나가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대북강경압살책동에 편승해서 반북고립압살책동에 질주하고 있는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익보수세력과 호전분자들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기 위한 투쟁도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민중은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소속에 관계없이 단결의 기치아래 하나로 뭉친 힘으로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책동을 박살내며 평화와 통일의 방해자이고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우리 민중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야 할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4일~25일

생존권투쟁과 반미반전투쟁

반세기이상 미국때문에 민족분열의 고통속에서 민족자주권과 존엄이 짓밟히고 뼈와 살점이 뜯기우며 수난민으로 살아온 우리 민중이죠. 그 저주로운 미국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공멸에로 몰아갈 핵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오늘날, 우리 민중이 반미반전투쟁에 한사람같이 분기해나서는 건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살고 계시는 노동운동가 김철남씨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생존권투쟁과 반미반전투쟁≫.

봄철 임투시기를 맞아 여러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생존권쟁취를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이 먹고 살아가기 위한 초보적인 생존권보장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요구해 투쟁하는 것은 사회적 인간으로써의 삶의 권리를 위한 것으로 매우 정당하다.

그러나 오늘날 노동자대중의 생존권쟁취투쟁이 단순한 해고자복직이나 임금을 얼마간 더 올리는 식의 투쟁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노동자들의 이 투쟁이 반미반전투쟁과 결부되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건 무엇보다도 노동자대중이 강요당하고 있는 생존의 위협이 이 땅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경제적 침탈에서 비롯되는 필연적 소산이기 때문이다.

금융위기를 몰아온 미국은 그를 빌미로 IMF의 신탁통치를 끌어들였고 신자유주의세계화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그로인해 기업들의 무리도산, 해외매각, 민영화, 요금의 폭등이 빚어져 민중은 도탄의 신음속에 빠지고 사회적 혼란은 증대되고 있다.

경제파국으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이다.

힘든 노동 속에서 경제적 회생을 위해 누구보다도 가장 크고 많은 일을 해왔으나 응분의 대우는커녕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다. 정리해고, 고용불안 등 그 어려움의 한계는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더욱 무참히 유린당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노동대중의 생존권을 파국에로 몰아넣은 미국의 경제침탈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우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편에서 노동대중이 지금 벌이고 있는 생존권투쟁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해도 생존권위협의 장본인인 미국의 경제침탈책동을 분쇄하지 않는 한 오늘날의 처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이치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생존권투쟁과 반미투쟁을 결부시켜 진행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미국이 이 땅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결과 냉전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이 땅에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화해와 평화, 통일의 분위기가 마련되게 됐다. 그러나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6.15공동선언이행에는 제동이 걸리고 이 땅에는 냉전의 기류가 다시금 밀려들게 됐다. 미국은 세계패권을 거머쥐려는 야심밑에 무력증강과 전쟁책동에 광분하고 있다. 심지어 이북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겨냥한 핵무기사용계획까지 작성하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이같은 세계지배전략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북의 위협설을 의도적을 조작하면서 10조원에 달하는 ≪F15K≫전투기를 이 땅에서 강매하려하고 있다. 10조원이면 40여만명의 실업자, 노숙자들에게 미국이 아니라 1인당 연 100만원씩 6년간 취업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 이 막대한 자금이 동족멸살을 위한 전쟁비용으로 탕진한 것이다.

지금 세계적인 규탄을 받고 있는 부시의 ≪악의 축≫발언이라든가, 북의 위협설, 대량파괴무기문제를 걸고 나선 건 전쟁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부시의 서울행각은 전쟁준비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실전에로 넘어가기 위한 전쟁행각이였다. 한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한 정세가 조성돼게 되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민족뿐이다. 다시 말해 우리 노동대중, 아니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중이 피해자로 되는 것이다. 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미군 포탄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사는 안방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핵전쟁의 마당이 될 이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사실이다.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전쟁의 먹구름을 미국이 몰아오고 있는 것이다. 결국 반미반전은 오늘 노동대중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앞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운명과 직결된 초미의 문제로 되는 것이다.

이제 더이상 우리 한반도를 위협하고 인명을 살상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전체 노동자대중은 자신뿐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도 지금 벌이고 있는 생존권투쟁을 반미반전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과감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중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덮씌우는 진짜 악의 근원인 미제를 반대하고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는데 우리 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 민중이 오늘의 처지에서 벗어나자면 생존권투쟁과 반미반전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때라야 자신들의 생존권을 실현할 수가 있고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통일의 새 세상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5일

고이즈미의 서울행각을 반대하는 규탄집회 이어져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전국민중연대와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투자협정 세계무역기구반대 국민행동을 비롯한 10여개 시민운동단체들이 공동으로 일본총리 고이즈미의 서울행각과 때를 같이해 22일 주한일본대사관앞과 종묘공원 등지에서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허영구씨는 지금 한일관계는 일제 식민지시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지난 반세기이상 일본의 경제지배는 계속됐고 이제는 군사대국화로 언제 다시 일본군대가 한반도에 진출할지 모른다고 격분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한일투자협정의 본질은 일본이 경제지배를 발판으로 군사적 진출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외세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씨는 지금은 50여년전 을사조약을 체결할 때와 똑같다며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일어섰던 선열들처럼 지금 바로 우리 민중이 일어나야 할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고이즈미의 방한을 반대해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가진 것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우리 민중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울분의 표시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중은 일제 식민지지배 40여년간의 악몽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의 과거행위에 대한 성실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이즈미가 우리 민중의 이러한 요구는 외면한 채 이 땅에 기어든 것은 그것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지배를 강화하고 나아가 군사대국화에 대한 발판을 마련해 보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이즈미가 방한해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하고 **********하고 한반도와 **아시아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배를 ******하기 위한 일본제국의 패권쟁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이즈미의 이번 방한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범죄적 지배를 강화하고 군사대국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코 실현하기 위한데 그 저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우리 민중이 어제날의 조선민중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깨닫고 한반도에 대한 재침야망을 즉시 버려야 합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과거 죄행에 대한 성실한 사죄와 보상은 물론 왜곡된 일본역사교과서부터 고치고 정신대할머니들에 대한 국가적 배상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일본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계속 외면하고 패권쟁탈만 추구한다면 우리 민족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만을 받을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통치의 이러한 망국사를 체험한 각계 민중은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재침야망을 걸음마다 저지시키고 과거죄행에 대한 성실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때까지 반일투쟁을 전국민과 함께 도처에서 광범위하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3일

이회창, 너는 죽어야 한다

반노동자적인 망발을 일삼고 있는 이회창의 행위는 우리 1300만 노동대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한국발전노조에서 일보고 계시는 김순한씨의 글을 박진수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회창, 너는 죽어야 한다≫.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최근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을 이기적인 폭력으로 몰아붙이는 악담을 퍼부었다고 한다. 까마귀입에서 까욱소리밖에 나올 수 없듯이 이회창의 입에서 이런 넋두리가 나오는 건 그리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회창이 초보적인 생존권을 위해 그처럼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을 모독하는데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지금 이 땅은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세계화정책으로 경제가 파산몰락하고 노동자들은 실업자로 전락되고 있다. 실업자대열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노숙자들과 고아 아닌 고아들이 거리에 차서 넘친다. 가정이 파탄되고 앞날에 대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이 사회를 저주하며 목숨을 끊는 자살참극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각종 사회악이 범람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의 이 땅에 대한 군사적 강점과 경제적 침탈책동때문이다. 이로 인해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빼앗기고 노동자들이 권력과 자본의 희생물로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이회창은 인간의 초보적인 삶의 권리를 요구해 나선 것마저도 이기적인 폭력으로 몰아붙이며 파쇼탄압에로 유도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존권투쟁이 왜 이기적인 폭력이란 말인가. 노동자가 초보적인 생계보장을 요구해 나선 건 당연한 것이고 그를 위해 실력행사에 나선 건 법적으로도 규제된 합법적인 권리행사이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행동을 이기적인 폭력으로 몰아붙이고 있으니 이를 어찌 참을 수 있단 말인가.

진짜 이기적인 것은 이회창이다.

이회창으로 말하면 자기 일개인의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을 파는 것도 서슴지 않는 매국역적이다. 그는 온 민족, 온 겨레가 한결같이 바라는 조국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갖은 방해를 놀았다.

얼마전에는 대통령감투를 노리고 미국상전들을 찾아다니며 역적행위를 일삼아 각계의 규탄과 배격을 받았다. 그런 이회창이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까지도 이기적인 폭력으로 몰아붙이고 있으니 생각만해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친미사대분자이며 극악한 반통일분자인 이회창을 이 땅에 그대로 살려두고서는 노동자들의 참된 삶의 권리를 실현할 수가 없다.

노동대중은 이러한 쓸개빠진 이회창을 정계에서, 아니 이 땅에서 영영 드러내야 한다. 그 뿌리까지도.

이회창의 망언에 분노한 우리 1300만 노동대중, 아니 온 국민, 온 민족은 입을 모아 외친다.

≪이회창, 너는 죽어야 한다.≫

세살때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죽을 때까지 세살때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는 얘기로 이회창을 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5일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3월 25일

김대중대통령의 특사가 4월 초 평양을 방문한다

김대중대통령의 특사가 4월 초에 평양을 방문한다.

쌍방은 민족앞에 닥쳐 온 엄중한 사태와 함께 서로 관심하는 북남관계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게 된다.

국방위원회에서 로씨야대통령악단을 위하여 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에서는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로씨야련방 대통령악단을 위하여 2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모스크바 크레믈리위수사령관 쎄르게이 스뜨리긴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악단 성원들, 조선주재 로씨야련방 대사 안드레이 까를로브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김일철차수 등 관계부문 일군들, 예술인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조선인민군 박재경대장은 연설에서 로씨야의 이름 있는 많은 배우들이 조선을 방문한것은 조선인민에 대한 존경하는 뿌찐대통령동지와 로씨야인민의 커다란 신뢰의 표시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대통령악단은 이번에 훌륭한 예술공연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강성대국건설에 떨쳐 나선 조선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고무하여 줄것이며 조로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로씨야인민이 존경하는 뿌찐대통령동지의 령도밑에 강력한 로씨야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하였다.

쎄르게이 스뜨리긴단장은 연설에서 대통령악단의 조선방문은 로조 두 나라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53돐이 되는 시기에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큰 상징적의미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그는 대통령악단의 평양에서의 공연들이 로조 두 나라사이의 문화적교류에서의 큰 사변으로 될것이며 두 나라사이의 우호적관계발전에 이바지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통령악단의 조선방문은 두 나라사이의 모든 분야에서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하려는 로씨야와 조선 최고지도자들의 의지의 뚜렷한 발현으로 된다고 단장은 말하였다.

끼르기즈수상 조선의 성과 언급

끼르기즈스딴인민은 조선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고 끼르기즈공화국 수상 꾸르만베크 바끼예브가 말하였다. 조선대사 리철광이 15일 끼르기즈수상을 의례방문하였다.

석상에서 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여러해째 계속되는 혹심한 자연재해속에서도 나라의 경제를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큰 전환을 이룩하였으며 강성대국을 건설할수 있는 도약대를 마련해 놓았다고 강조하였다.

민족을 핵참화속에 몰아 넣기 위한 위험천만한 불장난

≪로동신문≫ 25일부는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벌리고 있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계획적인 군사적도발이며 우리 민족을 핵참화속에 몰아 넣기 위한 극히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고 단죄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얼마전에 부쉬가 남조선에 기여 들어 현지침략군, 호전광들과 전쟁모의를 벌리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은 이번 전쟁연습을 통해 북침공격준비를 최종적으로 검토완성하며 나아가서 기회를 보다가 그것을 그대로 실전으로 넘겨 보려고 하는것이다.

우리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이 위험천만한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다. 침략자들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단호하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자들의 군사적위협공갈의 도수가 높아 지면 높아 질수록 우리는 자위적국방력을 천백배로 더욱 강화할것이다. 우리의 총대는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하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의 불질은 곧 그들의 자멸행위로 될것이다.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호전광들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핵개발≫선전소동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로동신문≫ 25일부는 얼마전 미중앙정보국 고관이라는 자가 우리가 ≪핵≫으로 미국본토를 공격할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싸일의 발사시험준비≫를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미국방장관이 우리가 ≪생화학무기≫와 ≪핵무기≫ 등 ≪대량살륙무기개발≫에 적극적이라고 한 사실에 대하여 평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핵위협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미국에 대고 할 소리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에는 2만여개의 핵탄두가 저장되여 있다. 특히 미국은 1,000여개의 핵무기를 남조선에 배치해 놓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부쉬호전집단은 우리에 대한 핵공격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 하고 있다.

이런 자들이 우리의 ≪핵문제≫를 입버릇처럼 외워 대며 중풍에 걸린 자들처럼 놀아 대고 있으니 정말 세상 웃기는 노릇이 아닐수 없다.

미국의 호전세력들이 우리의 ≪핵개발≫설을 입이 닳도록 외워대는것은 어떻게 하나 우리의 ≪핵위험성≫을 세계에 인정시켜 그를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의 구실로 삼자는것이다. 이 세력들은 새 세기 조선반도에서 첫 핵버섯구름을 피워 올리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그 무슨 ≪핵위협≫에 대한 미국의 거짓선전도수는 더욱 높아 지고 핵전쟁준비가 맹렬하게 다그쳐 지고 있는것이다.

우리는 미호전세력들이 떠들어 대는 우리의 ≪핵개발≫선전소동에 각성을 높이고 있으며 그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미제가 핵무기로 달려 들든, 상용무기로 달려 들든 그에 강력한 보복으로 대답할것이다.

선군정치로 빛나는 조선식사회주의 찬양

조선을 방문한 네팔까브레조선통일지지위원회 위원장 쑤바쉬 까지 쉐레스타는 선군혁명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를 빛나게 옹호고수해 나가고 있는 조선인민의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그는 선군정치는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전진시키는데서 반드시 틀어 쥐고 나가야 할 가장 완성된 정치방식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런 정치방식은 선행리론에서도, 인류정치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 볼수 없다. 사회주의위업실현에서 끊임 없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는것은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가 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위업이 빛나게 실현되여 나가고 있는 조선의 현실은 선군정치야말로 가장 정당하고 위대한 정치라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조선식사회주의는 선군정치로 빛나는 불패의 사회주의라고 나는 확신한다.

독특한 선군정치를 펼치시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조선은 끝없이 부강번영할것이며 조선식사회주의는 영원히 승리만을 이룩해 나갈것이다.

부쉬행정부의 조선침략야망을 규탄

세계사회계가 부쉬행정부의 조선침략야망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조선통일지지 기네위원회 위원장은 담화에서 조선반도에서는 미국과 남조선에 의해 의연히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전쟁위험은 더욱 커 지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과 남조선은 조선에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벌가리아신문 ≪라보뜨니체스끼 베스뜨니크≫는 글에서 미국은 이미 1950년대초에 북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으며 그것이 참패로 끝난 후에도 정전협정을 유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벌려 왔다고 지적하였다.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성명에서 미국이 1950－1953년 조선전쟁에서 청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패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잊고 있는것 같다고 하면서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켜도 자기들은 벌을 받지 않을것이라고 심히 오산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에짚트조선친선협회는 성명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잘 리행되여 조선반도에서 화해와 평화, 통일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전체 조선인민과 국제공동체의 념원에 역행하는 대규모군사연습을 즉시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가이아나로동동맹 위원장은 성명에서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반공화국전쟁책동에 동조하여 이번 전쟁연습에 기어이 가담한다면 그것은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로골적인 배신행위로서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받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중국의 ≪해방군보≫는 글에서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은 대화상대방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말데 대한 조미기본합의문의 정신과 북남공동선언의 정신을 위반하고 조선반도에서 화해와 협조, 평화의 훌륭한 분위기를 파괴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선군사상의 결사관철자가 되자

로동신문 사설 - 주체91, 3월 25일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을 높이 받들고 제국주의전쟁책동을 짓부시며 이 땅우에 민족사에 길이 빛날 조국번영의 전환적개화기를 열어 나가기 위한 총 돌격전을 힘 있게 벌리고 있다.

멀지 않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과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로 맞게 되는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백두의 선군령장들을 모시고 세기의 폭풍우를 헤치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높이 떨쳐 가는 한 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 나고 있다.

우리는 위대한 선군의 기치 따라 주체혁명의 백승의 전통을 이어 나가는 세대답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의 선군령도, 선군정치를 잘 받들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

선군사상은 위대한 백두령장들의 특출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선군령도의 업적과 경험이 집대성되여 있는 우리 시대 혁명의 백승의 기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주체의 원리를 구현하여 자체의 강력한 군력으로 무장한 적을 때려 부시고 조국광복을 이룩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우리 혁명의 전 행정에서 선군의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여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적인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군대를 먼저 창건하고 당과 국가를 건설하시였으며 국방력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어 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과 령도는 우리 인민이 새 조국건설과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건설시기를 비롯하여 준엄한 혁명의 폭풍속을 승리적으로 뚫고 올수 있게 한 근본원천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근년간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조성된 엄혹한 정세에 대처하여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독창적인 군중시철학을 내놓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선군사상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 있고 제국주의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절대로 총대를 놓을수 없으며 총대를 튼튼히 틀어 쥐여야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 우리를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는 끝까지 결판을 내자는것이 선군사상에 맥박치는 기본정신이다. 선군사상의 심화발전은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밀고 나가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의 출현을 가져 왔으며 자주위업승리의 새로운 시대를 펼쳐 놓았다.

오늘의 시대는 선군시대이며 선군사상은 새 세기의 위대한 혁명적기치이다.

지금 세계는 위대한 선군의 기치 따라 력사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백승을 떨쳐 가는 우리 조국의 영웅적기상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선군사상은 오늘 공인된 시대적사조로 되고 있으며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군사적강권책동을 짓부시고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위력한 정치방식으로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위대한 선군사상의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의 절대적인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선군사상의 절대적인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된다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생명선으로 삼고 견결히 고수하며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투사가 된다는것을 말한다.

선군사상은 위대한 장군님과 뜻과 운명을 함께 하며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는 선군시대 혁명가들의 고귀한 혁명적량식이다.

선군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의지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조국통일과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실현하며 기어이 주체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야 할 우리 시대 혁명가들의 삶과 투쟁의 표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이다. 선군사상을 절대화하고 그를 체질화할 때 누구나 총대와 같이 변함 없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그 어떤 풍파와 시련이 닥쳐 와도 위대한 장군님과 끝까지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튼튼히 준비될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불패의 통일체이며 오늘 우리 일심단결의 사상적기초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로선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끝까지 혁명을 하려는 한결 같은 신념과 의지로 불 타고 있기에 우리의 일심단결은 그 어떤 원쑤도 깨뜨릴수 없는 철통 같은것으로 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인민군대의 총대우에 민족의 자주권과 혁명의 승리가 있다는 견결한 혁명적립장을 지니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드는 길에서 영원히 뜻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결사의 대오로 더욱 굳게 뭉칠 때 혁명의 주체의 위력은 백배해 질것이며 우리 혁명은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승리만을 떨치게 될것이다.

지금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있다.

오늘에 와서 미제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흉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생사결단의 혈전을 치르어야 할 준엄한 반제계급투쟁의 시대에 살며 혁명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는 우리의 군력을 천백배로 다져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소탕하고 다시한번 영웅적조선인민의 기상과 본때를 보여 주겠다는 드높은 각오와 투지가 더욱더 끓어 오르고 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 때 우리 조국은 천하대적도 감히 덤벼 들수 없는 불패의 성새로 그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칠것이다.

우리의 강성대국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무적필승의 강국이다. 오늘 새 세기의 혁명적진군길에서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적, 군사적진지가 비할바없이 다져 지고 온 나라에 혁명적군인정신이 힘차게 나래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돌파구가 열리고 있는것은 우리 당의 선군사상이 구현되여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다. 우리는 위대한 선군의 기치 따라 전진하고 승리하는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는 선군시대의 참다운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시련에 찬 혁명의 천만리길을 걸어 오는 나날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이 제일이며 장군님의 사상을 받들어 나가는 길이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심장깊이 체득한 인민이다. 만민이 21세기의 진로를 밝히는 투쟁의 홰불로 공감하며 따르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사상을 백승의 기치로 높이 들고 나가는 우리 인민처럼 긍지 높은 인민은 이 세상에 없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투쟁하는 길에 자신들의 행복도, 조국의 후손만대의 번영도 있다는 투철한 신념을 변함없이 간직해야 한다. 열백번 다시 태여난다 해도 오직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만을 생명선으로 틀어 쥐고 나가는 참된 혁명가, 어떤 역경속에서도 장군님의 사상을 옹호하며 그를 철저히 관철하는 길에서 값 높은 삶을 빛내이겠다는 각오로 심장을 불 태우는 열혈의 투사가 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선군사상에 맥박치는 혁명적립장을 체질화하고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당의 선군사상에는 우리를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는 추호의 양보나 타협이 있을수 없고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싸워야 하며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혁명적립장이 반영되여 있다.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기어이 완성해 나가시려는 **김정일**동지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는 천만군민의 사생결단의 각오가 구현되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의 선군사상이다.

치렬한 반제계급투쟁의 시대에 살며 혁명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는 우리의 피 맺힌 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과는 무자비하게 싸우며 반드시 피값을 받아 내겠다는 견결한 립장과 투지가 맥박쳐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총대와 같이 견결한 원칙적립장을 지니고 선군사상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 들어야 한다.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충정, 혁명의 원쑤들에 대한 증오와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을 용서치 않으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간직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선군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한다.

위대한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승리하여 온 우리 혁명의 력사와 전통을 깊이 체득하고 더욱 빛내여 나가야 한다.

선군을 떠나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어제와 오늘, 래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령도의 길에서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경험, 력사와 전통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특히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준엄했던 시련의 시기에 이룩하신 선군혁명실록을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로 길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온 사회에 총대를 중시하고 군사를 성실히 배우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인민군군인들을 친혈육과 같이 도와 주고 우리 군대제일주의의 전통적미풍이 더 활짝 꽃 펴나게 해야 한다. 새 세대 청년들은 군사복무를 공민의 가장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인민군대에 적극 탄원하여 나서야 한다.

당조직들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선군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더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선군사상의 제일체현자, 제일옹호자, 제일관철자들인 인민군군인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인민군군인들이 발휘하고 있는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정신의 산 모범들을 가지고 사상교양사업을 현실성 있게 해나가야 한다. 정세가 복잡하고 조건이 어려울수록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위력을 굳게 믿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일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새맛이 나게 해나가야 한다. 당일군들은 대중속에 들어 가 그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선군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해설침투하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선군사상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투사가 되게 하여야 한다.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을 총 동원하여 온 나라에 높은 정치적열정과 혁명적분위기가 차넘치게 함으로써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맞는 뜻 깊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여 나가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을 체질화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하는 선군시대의 참다운 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 나가자. (끝)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을 현명하게 조직영도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31회

학사 리광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3월 25일

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주체88(1999)년은 우리 공화국의 강성대국건설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1999년 1월 1일 우리 공화국의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공동사설을 발표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공동사설을 통해 자신께서 오랫동안 무르익혀 오신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해 나간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 공화국에서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전면적 건설이라는 격동적인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노동계급 속으로 들어가시여 ≪성강의 봉화≫, ≪낙원의 봉화≫를 지펴주시고 그것이 온 나라에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불길로 타오르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준마를 타고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 질풍같이 내달려야 합니다.≫

이와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준마를 타고 구보로 달린다는 것은 천리마시대 사람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와 투쟁정신을 본받아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새로운 현실의 요구에 맞게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간다는 뜻을 형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성진제강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속에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셨습니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강행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서 강철생산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3월 성진제강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셨습니다. 이 기업소는 우리 공화국의 강력한 강철생산기지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시기 성강의 실태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전기로를 돌리자고 해도 전기가 절대적으로 모자랐고 원료자재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성강이 멈춰서면 강철공업이 멎고, 강철공업이 멈춰서면 나라가 멈춰서게 된다고 하면서 전기와 원료자재만 넉넉히 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기업소의 관리일군들도 머리를 짜내며 토론을 거듭했지만 해결방도는 좀처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몸소 성강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업소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하시고 현지에서 협의회를 소집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협의회에서 자강도에 갔을 때에는 우리 인민, 우리 노동계급을 믿고 주체혁명 위업을 완성하려는 자신의 결심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였다면 오늘 성강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 난국을 뚫고 더 높은 봉우리에 올라설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적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시 조성된 난관을 저들의 유리한 기회로 여기고 무분별하게 날뛰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조국을 지켜낼 뿐 아니라 다시는 감히 넘겨다보지 못하는 강성대국으로 만들자면 앞으로 쭉 내달려 적들을 아득히 떨구어 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오늘의 형편에서 비약할 수 있는 방도는 오직 하나, 전체 인민을 새로운 천리마대고조에로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 조성된 정세로 보나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차지하는 몫으로 보나 당에서는 성진제강연합기업소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우리 혁명이 난관과 시련을 겪을 때마다 강철노동계급이 혁명적 대고조의 앞장에서 강철로 당을 받들었듯이 성강의 노동계급이 분연히 일떠나 대고조의 돌파구를 열어제낄 것을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성진제강연합기업소 종업원들은 궐기모임을 가지고 다시한번 천리마를 탄 기세로 세계를 주름잡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켜나갈 것을 결의하고 이에 호응할 것을 전국의 모든 노동계급과 근로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성강에서는 이렇게 해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봉화가 타올랐습니다. 압연강제생산에서 긴장한 기능공 문제가 제기되자 압연공 출신의 일군들이 스스로 압연기를 만가동시켰고 조강직장들에서는 고속도 압연법과 두대치기 압연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면서 매일 계획을 120프로, 150프로 넘쳐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공학관직장과 유도로직장, 단저직장과 이중탄종합직장들에서도 새로운 혁신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강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직후인 첫 몇 달 동안에 그 전해의 생산량과 맞먹는 강철을 생산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성강에 타오른 대고조의 봉화는 전국에 거세찬 불길로 타번져 제2의 천리마대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강성을 비롯한 전국의 제강, 제철부문의 노동계급은 지난시기 그러했던 것처럼 변함없이 강철로 당을 받들자고 떨쳐나섰고 석탄, 전력, 철도, 운수 부문의 노동계급도 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 것을 결의해 나섰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으로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다음으로 낙원의 노동계급이 봉화를 일으키도록 하셨습니다. 성강에서 지펴진 봉화가 낙원에서 거세차게 타오르고 금속공업 부문에서 타오른 대고조의 불길이 기계공업 부문에서 연이어 타올라야 온 나라가 제2의 천리마대진군으로 들끓을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승리에로 이끄시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은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일대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역사적인 대진군운동입니다.

이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9(2000)년 1월 낙원기계공장을 찾으셨습니다. 낙원기계공장은 조선노동당 역사에 ≪낙원의 열명 당원≫으로 기록된 충신들을 낳은 공장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도 전화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일하는 ≪낙원의 열명 당원≫들과 그 자녀들을 만나시여 따뜻이 고무, 격려해 주시고 빛나는 투쟁전통을 가지고 있는 낙원노동계급이 앞으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창안제작해서 전국의 모범이 됨으로써 어버이 수령님의 영도업적을 더욱 빛내이고 제2의 천리마대진군에서 온 나라의 앞장에 서야한다고 하시면서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

낙원의 노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또다시 베풀어주신 한없는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새로운 천리마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었습니다. 그들은 생산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이미 주체88(1999)년에 자체의 힘으로 새로운 유압식 굴착기를 제작한 성과에 기초해서 주체89(2000)년에 들어와 유압설비와 유압요소생산공정을 더욱 완비하고 굴착기를 대량생산하기 위한 전투를 통이 크게 벌려나갔습니다.

낙원에 추켜든 봉화는 전국에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져 공화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들을 끊임없이 개조하고 생산의 기술 수준을 높여 생산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공화국에서의 ≪성강의 봉화≫, ≪낙원의 봉화≫는 이렇게 타올랐으며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은 이렇게 개시되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성강의 봉화≫, ≪낙원의 봉화≫ 따라 개시된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을 현명하게 영도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을 영도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업부문 전반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에 큰 힘을 넣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선 금속공업의 생산정상화와 그의 주체성과 자립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금속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체87(1998)년 3월과 주체89(2000)년 정초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업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성진제강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제철, 제강소들과 연관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생산정상화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워 주시고 걸린 문제들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이와 함께 금속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철공업에서 일대 혁명으로 되는 산소열법에 의한 제철법을 완성하고 산소열법용광로를 백프로 자체의 기술과 자재, 자체의 힘으로 조업하도록 하시여 금속공업에서 일대전환을 이룩하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기계공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계공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돌파구를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에 생산정상화에서 찾으셨습니다.

주체87(1998)년 6월 1일,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공장 노동계급에게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을 돌리는 것은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이 돌아가게 되면 전국의 모든 기계공장들을 능히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은 나를 믿고 나는 동무들을 믿고 우리 함께 다가오는 9.9절까지 공작기계생산과제를 수행하자고, 공작기계생산을 정상화해서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자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그 후 구성공작기계공장, 양책베아링공장을 비롯한 여러 기계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고 기계공장 노동계급들을 생산정상화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셨습니다.

(12면에 계속)

임동원 특사에 거는 기대

민족공조에 입각해 한반도문제를 푸는 첫 단추의 역할하기를

25일 오전 10시 남과 북은 ≪임동원 특보가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 4월 첫째주 중 평양을 방문한다≫는 내용을 동시발표했다. 이로써 사실상 1년 넘게 교착상태에 있던 남북관계에, 황사가 걷힌 맑은 하늘처럼 청신호가 켜질지 기대가 된다.

사실 어떤 두 나라의 관계가 교착상태에 있을 경우 사태를 반전시키거나 관계개선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 특사의 역할만큼 적합한 것은 없다.

특히 한반도와 같이 아직 냉전체제가 말끔히 가시지 않고, 따라서 아직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한 조건에서 특사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다.

특사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74년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단신으로 평양에 가서 7.4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 냈다. 이후락 정보부장은 대북밀사의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 즉 ≪상부의 뜻을 받들어≫ 서명한 특사였다. 다만 주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은밀히 진행해야 했기에 밀사가 된 것일 뿐이다.

가깝게는 2000년 6월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성사도 당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측 송호경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합의한 것이었다. 또한 같은 해 10.12북미공동코뮤니케 발표도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조명록 차수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의 사이에서 합의한 것이었다.

이처럼 특사파견이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임동원 특보의 특사파견과 관련한 남북간 합의배경을 두고 △남과 북이 서로 대화를 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다는 식의 상투적 시각이나 △또는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남과 북이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한가한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

최근 한반도정세와 남북관계는 ≪특사≫가 갖는 의미와 무게만큼 특별나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한반도정세의 주요 축이라 할 수 있는 북미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지난 1월말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해 북측이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간주한 것이나, 최근 미국의 핵태세보고서(NPR)에서의 ≪핵공격≫에 대해 북측이 ≪미국과의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 등등에서 보여지듯, 한반도는 용어상으로는 이미 전시중에 있다. 입심과 담화를 통한 설전(舌戰)이 언제 실전(實戰)으로 비화할지 모르는 형국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측이 ≪한반도 긴장조성을 예방하며, 6.15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 문제 등 제반 현안에 관해 남북 최고당국자간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하여≫ 그리고 북측이 ≪쌍방은 민족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와 함께 서로 관심하는 북남관계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이 특사파견에 합의한 것은 한마디로 6.15 공동선언의 이행문제와 민족문제를 함께 풀고자 하는 양측의 혜안과 용기의 결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특사파견이 △그간 남북간 합의사항에서 미이행된 이산가족상봉과 장관급회담의 재개 합의로 한정되거나 △또는 곧 있을 남측의 월드컵대회와 북측의 아리랑축전의 성공을 위한 남북고위급 인사의 교차방문 성사 합의에 만족하길 바라지 않는다.

물론 이들 사안들의 재개와 성사도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한반도정세는 그러한 합의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북미관계가 준전시 상황까지 간 마당에 남북대화가 재개된다는 것은 그것도 특사에 의해 재개된다는 것은 무언가 매우 중요한 문제, 즉 민족의 명운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 사실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이긴 하지만 남북대화 재개만을 위해 남측의 특사가 북측에 꼭 가야만 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냥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정도라면 기존의 장관급회담을 재개하면 되는 것이다. 둘째, 이번 남북 동시발표는 ≪특사가 남북간에 무엇인가를 합의했다≫는 것을 발표한 게 아니라 ≪남북이 특사파견에 합의했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다. 즉 은밀하게 하기에는 적당치 않고 또 단순히 남북차원에 한정되지 않는 의제가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지금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다시 상봉해 대화와 회담을 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특사파견이란 사실상 두 번째의 남북정상회담에 비견될 수 있다. 그렇기에 대통령의 특사자격인 임동원 특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다.

다행히도 임동원 특사는 통일문제에 있어 ≪김대중 대통령의 분신이자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불리우고 있다.

임 특사가 ≪상부의 뜻을 받들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인 민족공조에 입각해 한반도문제를 푸는 첫 단추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통일뉴스 2002/03/25

(11면에서 계속)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철도 운수를 추켜세우기 위하여 철도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철도운행을 정상화하는데 힘을 넣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석탄 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굴진을 앞세우고 채탄장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벌려 석탄생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 군인들을 주요탄광들에 파견하시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멎었던 공장, 기업소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고 생산이 활성화되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주체89(2000)년 공업 총 생산량은 그 전해에 비해서 1. 1배로 장성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을 영도하시면서 또한 우리 공화국의 경제를 세계의 맨 앞자리에 올려 세울 대담한 목표를 내걸고 투쟁하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발전된 나라들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내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분발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기계를 만들어도 세계적으로 가장 현대적인 기계를 만들고 천을 짜도 어느 나라 것보다 더 좋은 고급 천을 짜며 알곡종자를 육종해도 생육기일이 짧으면서도 수확고가 제일 높은 우리 식의 종자를 육종할 목표를 내세우고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벌리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들에서는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들이 창조되었습니다. 한가지만 실례를 든다면 낙원의 노동계급은 주체89(2000)년에 전자유압식조정굴착기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자유압식조정굴착기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발전되었다고 하는 몇 개 나라들에서만 생산하는 기계설비인데 국제시장에서 그 한대 값이 십육만달러나 됩니다. 그런데 낙원의 노동계급은 다른 나라들의 것보다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승리에로 이끄시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은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일대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역사적인 대진군운동입니다.

이 위대한 대진군운동에 의해서 온 나라에 타오른 새로운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은 새 세기에 들어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나남의 봉화≫로 이어져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 추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이만하겠습니다.

오늘 시간까지 모두 여덟 번에 나누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시간부터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국통일 위업 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신데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총련, 국방부청사 진입 기습시위

26일 11시 35분경 학생 및 사회단체 회원 23명이 국방부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전원연행되었다.

이들 시위자들은 국방부 정문앞을 지키던 위병 근무자들을 밀치고 성명서를 부리며 국방부 청사를 향해 40여m까지 들어갔다.

이들의 진입을 알아차리지 못한 정문 위병 근무자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국방부 정문 철문을 닫고 뛰어들가는 시위자들을 저지하기 시작했다.

시위대는 헌병들과 위병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F15-K 도입반대, 한미연합훈련 반대, LPP 전면 재협상≫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10여분이 지난 11시 45분경 곧바로 경찰이 투입되었고, 이들 시위자들은 전원 연행되었다. 한편, 연행과정에서 경찰의 강경한 진압으로 시위를 취재하던 몇몇 사진기자들의 카메라가 파손되고, 국민일보 기자는 손가락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한때 기자들과 경찰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3/26

민주노총, 내달 2일 ≪총파업≫ 결의

26일 오후 대의원대회에서 결정, 공공연맹 · 금속연맹주 · 전교조도 연가투쟁 계획

민주노총이 발전노조의 파업과 관련, 다음달 2일 전면 총파업 돌입을 결의해 발전 파업 사태가 노정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은 26일 오후 서울 올림픽 역도경기장에서 대의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부가 파업 노조원 대량해고,명동성당 공권력투입 등을 자행하면 투쟁본부 대표자 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오후 1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교섭권을 위임받아 대통령과 여야대표 면담 등을 추진하는 등 대정부 교섭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공공연맹과 금속연맹 소속 노조들이 대거 가담하고 전국교직원노조등도 연가투쟁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체 참가 규모는 지난달 26일 1차 총파업 때와 비슷한 100여개 노조 10만여명이 될 것으로 민주노총은 예상했다.

민주노총은 이에앞서 27일부터 전국 단위노조별로 노조 간부 중심으로 철야농성에 들어가고 지역별 발전노조원 가족 집회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또한 오는 30일 노동사회단체들과 연계해 전국에서 동시다발 민중대회를 열고 발전사태를 풀기 위한 정부와 사용자측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과 노동탄압 중단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날 발전노조 집행부는 27일까지 각 조별로 사직서를 받아 노조 상황실에 제출토록지시했으며, 노조원들은 수도권을 돌며 산개투쟁을 지속했다.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파업 지도부와 주동자에 대해선해고 등 엄정 처리하되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징계과정에 3차례 소명기회를 줘 단순가담자는 정상을 참작, 최대한 구제해 피해자를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발전회사측은 파업 한달째인 이날 오후 2시 현재 노조원 5천591명 가운데 33.5%인 1천875명이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집계했다.

특히 조장급 노조원 등으로 구성된 3차 징계대상자 404명 가운데 200명 가량이 업무에 복귀했으며, 전북 무주양수발전처의 경우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위원장을 제외한 노조원 48명 전원이 파업을 푸는 등 노조원들의 동요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이날 보일러수 누설로 동서발전 소속 20만kW급 울산화력 2호기의 가동이 중단되는 등 파업 장기화에 따른 전력대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성한기자
연합뉴스 2002/03/26

총학생회장단, 대학 내 공권력 투입 규탄

발전 노조 파업 적극 지지 의사도 밝혀

최근에 있은 학내 공권력 투입과 관련해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단들이 이를 저지, 규탄함과 동시에 발전 노조 파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오늘 오전 11시 느티나무 까페에서는 서울대 구정모 총학생회장, 연세대 윤수진 총학생회장, 고려대 김성광 문과대 학생회장 등이 모인 가운데 ≪공권력 학내 난입 규탄과 발전소 사유화 저지를 위한 전국대학 총학생회장단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특히 지난 23일 공무원 노조 출범 예정지였던 서울대와 공무원 노조 출범식이 진행된 고려대, 다음 날 24일에 있은 발전노조 2차 결집 장소인 연세대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최근 사건들을 설명하며, 이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덧붙여 총학생회장단은 오늘로 30일로 접어든 발전노조 파업에 대해 ≪ 발전 노조 파업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정치 투쟁으로 청년 학생들이 함께 해야 하는 투쟁이다. 또 노동 3권을 보장 받기 위한 공무원 노조의 출범에 대한 우리들의 연대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발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발전노조의 공기업 사유화 저지 투쟁을 250만 대학인의 이름으로 지지합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특히 ≪발전소 매각 철회 파업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국가 기간 산업의 미래를 위해 해고와 징계 공권력의 위협과의 싸움이다≫며, 연대 투쟁에 동참할 뜻을 강력히 내비쳤다.

김장효숙기자
유뉴스 2002/03/26

교육 투쟁,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교육학생연대, ≪3.29 총궐기≫ 등 대규모 집회 가져

전국 50여개 대학들이 학교측과 등록금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6일부터는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

26일 오전 교육학생연대는 ≪등록금 인상 저지 · 교육 재정 확충 · 교육 시장화 정책 전면 철회를 위한 대정부 농성단 기자회견≫에서 △교육 시장화 정책 전면 철회 · 대학 구조조정 반대 △WTO 투자협정 반대 · 교육 개방 저지 △등록금 인상 저지 · 국가교육 재정 확충 △국립대회계 특별법 저지 · 사립 학교법 개정 등을 5대 요구안으로 내걸고, 이후 투쟁 일정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자유주의 교육 시장화 정책은 교육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교육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 또 교육에 대한 부담을 민중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교육 시장화 정책 전면 철회와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교육의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해 전국 대학생들은 오늘 무기한 대정부 농성 투쟁에 돌입, 이후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는 의지를 전했다.

이어 서울대 구정모 총학생회장은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사학재단들은 재정적 지원은커녕, 자산 불리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또 교사, 교수, 교직원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까지 현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임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 등록금 인상 철회 투쟁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오는 29일 이상주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입장과 의견을 듣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학생연대는 오늘 농성 투쟁을 시작으로, 오는 27일에는 교육부를 상대로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29일은 현재 진행 중인 선언 · 서명 결과를 전달 할 예정이다. 특히 29일에는 전국 1만 여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인상 저지 · 교육재정 확충 · 교육 시장화 저지를 위한 3.29 전국 대학생 총궐기≫를 열고, 30일 ≪2002년 1차 민중대회≫ 등을 가져, 대중적 투쟁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효숙기자
유뉴스 2002/03/26

노무현에 대한 ≪비판적 지지≫는 없다

진보진영, ≪노무현 대안론≫의 대안론 준비해야...

87년 민중운동진영의 김대중 비판적 지지론(비지론)과 비교해 현재 노무현 비판적 지지론은 그 실체가 없으며 진보진영에서는 노무현의 상대적 개혁이 아니라 민중의 정치 세력화와 진보정치 실현을 위해 ≪노무현 대안론≫의 대안론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대와 성찰: 사회포럼2002≫ 마지막날 전체토론 ≪2002년 양대선거와 사회운동의 과제≫에서 시민 · 민중운동 진영은 전반적인 정치개혁 운동을 점검하면서 노무현 돌풍이 진보진영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노무현 비판적 지지론의 허상을 제기했다.

87년 김대중비지론과 2002년 노무현비지론이 다른 이유

87년 대통령 선거때 당시 김대중 후보에 대해 민족민주운동 세력은 ≪비록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유력한 후보들 가운데서는 민족자주와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가장 우호적≫이라며 비판적 지지론을 내세웠다. 그리고 2002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진보진영 인사들의 조심스러운 지지가 87년 당시의 비지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재 진보진영의 노무현 비판적 지지론과 87년 김대중 비판적지지론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진보진영 일반의 지적이다. 민주노동당 등 독자적인 현실정치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87년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는 가능했으나 민노당, 사회당 등 독자적 정당이 존재하고 정당의 독자 후보를 통한 전술이 유효한 지금, 비판적 지지론은 현 진보정당의 존립 자체를 무시한 단순 비교라는 것.

상지대 정대화 교수(교수노조 조직실장)는 ≪87년에는 김대중이라는 제도권의 개혁적인 인사와 별개로 독자적인 후보가 정당의 지원없이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반면, 최근에는 이러한 독자출마가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하는 진보정당을 통해 제도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과거와는 구별된다≫며 87년 비지론과의 차이를 지적했다.

결국 진보진영 인사들의 개인적인 지지나 비판 이외에 2002년 현재 진보진영 일반의 공식적인 노무현 비판적 지지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 후보가 선전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하는 진보정당은 그 이념에 맞는 독자적 후보를 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의 국민경선제와 ≪노무현 돌풍≫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민주당으로 흡수하고 있는 현재, 노무현이라는 상대적 개혁세력이 대중적 지지기반이 열악한 민주민중운동 진영의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축소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진보진영 일부의 노무현 지지론은 진보진영이 현실정치에 개입할 여지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전체의 개혁과 민주화에, 그리고 진보정당에 긴장을 형성시키고 있다.

선거는 대통령만 선출하는 장치가 아니라 대통령의 이념적 · 정책적 기조의 결정, 임기동안 대통령과 함께 할 사회세력의 결정, 정책방향의 결정등이 포함되는 권력교체의 과정이다. 비록 그 내부에 상대적 개혁세력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나 대통령 선거가 자칫 보수세력들간의 권력투쟁으로만 전개되면 민중진보세력의 정치적 입지가 불투명해질 뿐 아니라 폭넓은 세력을 아우르는 한국 정치의 진보가 제약당할 가능성이 많다.

진보진영, ≪노무현 대안론≫의 대안론 준비해야

따라서 진보진영의 노무현 비지론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DJ정부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에서 노무현 비판에 그치거나 그의 정책노선을 비판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담론의 지형 형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특정 정당의 행사가 되거나 권력 교체와 같은 인물 문제에 머물지 않고 수많은 사회세력들간의 대결과 참여가 되도록, 노동민중진보 진영의 민주화와 이를 기반한 정치개혁을 창출하기 위해, 곧 ≪노무현 대안론≫의 대안론을 준비해야 한다.

홍미진기자
시민의 신문 2002/03/26

[인터뷰] 통일연대 상임대표 한상열 목사

미제품 불매, ≪아리랑≫ 참가단모집에 심혈을 기울일것

지난해 3월 15일 민간교류 확대와 단결된 통일운동을 위해 꾸려진 ≪6 · 15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가 결성 1주년을 맞았다. 이에 전국 통일연대 상임대표이자 전북 통일연대 상임대표인 한상렬 목사를 만나 통일연대의 1년을 되돌아 봤다.

통일연대 1년의 성과와 오류점은.

통일연대의 가장 큰 성과는 통일운동의 대동단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통일운동에 다양한 노선이 있었다. 하지만 통일연대라는 이름으로 묶인 이후에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하나로 단결해가고 있다. 또 하나의 성과는 민간차원 교류에 새 기운을 불러일으킨 점이다. 통일연대는 결성 이후 민화협, 종단과 함께 6 · 15 대토론회, 8 · 15 민족통일대축전 등 큰 남북공동행사를 성사시켰다.

하지만 아직 통일운동이 대중화됐다고 말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지난 8 · 15 통일 대축전 때 통일연대를 매도하는 수구언론과 반통일 세력의 난동도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방해하긴 했지만 통일연대가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이런 성과와 오류점을 통해 실제 생활에서 통일을 실천해 가는 통일운동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지난달 25일 금강산에서 열리기로 했던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무산에 대한 생각은.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은 통일연대와 민화협, 종단이 힘을 모아 지난 8 · 15 통일축전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추진했던 행사였다. 때문에 남북의 만남 자체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문제시 할 사람들은 최대한 빼도록 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남북교류행사에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무려 42명의 방북을 불허했다. 통일연대는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행사를 진행할 수 없고 잘못하면 조직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어 전원 불참 방침을 정했다. 이번 일을 대중성 확보와 통일단결의 새로운 계기로 삼을 것이다.

전북 통일연대 상임 대표로서 전북지역의 통일운동을 평가한다면.

전북 통일연대는 지난해 4월 16일 85개의 단체들이 모여 결성됐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로 85개의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런 면에서 전북지역의 통일운동은 좋은 풍토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북통일연대는 지난해≪전북지역 통일문화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 통일연대의 활동 계획은.

패권주의적인 미국의 행태와 더 이상의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 F-15를 비롯해 코카콜라, 맥도널드 등 미제품 불매운동을 상반기 중점사업으로 해나갈 것이다. 이미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어 든든하다.

또 하나 중요한 사업으로 아리랑 축전 참가단을 조직하고 있다. 정확한 참가 규모 등은 남북 당국자회담이 있어야겠지만 일단 예비적으로 참가단을 모집해서 희망자의 숫자도 파악하고 통일 분위기도 높여갈 계획이다. 이 밖에 또 다른 민간교류를 위해 북측에 실무회담을 제안했고 6 · 15 공동선언 2주년 행사와 8 · 15 통일대축전도 준비하고 있다.

전북대 황재근기자
유뉴스 2002/03/26

진보정당건설에 대하여 2 (6)

≪브라질노동자당의 당원수는 약 30만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브라질노동자당은 1998년에 있은 선거를 통하여 상원의석 81석 가운데서 7석을, 하원의석 513석 가운데서 60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브라질노동자당은 2001년 현재 약 1백90개 시에서 집권하고 있다.

이 당의 목적은 앞으로 브라질에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도록 사회의 정치, 경제적 변혁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브라질노동자당은 이념상에서 사회주의이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당은 ≪교조적 사회주의≫가 아니라 브라질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것을 지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당은 대내적으로는 사회의 모든 빈궁과 부정의의 청산, 부정부패반대, 새로운 임금제도의 실시, 토지개혁, 통신수단의 민주화, 교육제도의 개혁, 노조활동의 자유, 선거법의 개정 등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민중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며 특히 쿠바변혁을 수호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적극 벌이면서 쿠바에 대한 미제의 경제봉쇄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 . .

그러면서 룰라는 노동자들의 정치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은 기존보수야당들과는 구별되는 정당이어야 하며 이 당의 당원으로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지할 수 없는 자본가를 제외한 모든 진보세력이 다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룰라가 주장하는 정당이 노동계급만을 위한 협소한 정당이 아니라 노동계급을 비롯하여 모든 진보적 세력들을 광범히 망라하는 대중적 정당이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룰라는 자기가 주장하는 대중적 정당에서는 어디까지나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들이 조종자, 최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 .

브라질노동자당은 수십명의 노조지도자들과 함께 인텔리와 대학생운동의 지도자들을 당에 받아들이고 이들을 통하여 광범한 군중의 대중투쟁을 이끌어 나가게 함으로써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을 밀접히 결합시켜 나가도록 하였다. 특히 룰라는 국회의원들로 의회투쟁을 벌이게 하는 한편 1983년에는 ≪진정한 노조≫의 전국적인 조직인 ≪노동자중앙연합회≫(Central Workers Union-CUT)를 내오고 이 조직을 통하여 1989년 3월에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조직하였으며 여기에 2천만명의 노동자들을 참가시키었다.

브라질노동자당은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의 밀접한 결합을 통하여 이 두가지형태의 투쟁으로 하여금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며 엄호하게 함으로써 운동실천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 1984년에 있은 반군부독재투쟁과 직선제개헌투쟁때에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었기 때문에 투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는 한편 브라질노동자당과 룰라는 광범한 군중들로부터 대단한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

. . .

합법적인 진보정당의 활동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그 기본목적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이다. 합법적인 진보정당은 일반적으로 자기활동에서 의회연단을 통하여 반동통치배들을 고립시키거나 의정활동으로 변혁운동에 유리한 법적, 제도적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운동역량강화에 중요한 목적을 두어야한다. 브라질노동자당의 경우에는 자기활동에서 운동역량을 강화하는데 기본목적을 두어 왔다.

. . .

브라질노동자당은 우선 그동안 대중 속에서 선거를 비롯한 일련의 계기들을 이용하여 자기당의 정강정책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왔다.

. . .

브라질노동자당은 또한 당의 사회계급적 지반을 폭넓게 규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실천해 나갔다.

. . .

브라질노동자당은 또한 노조운동과 다른 민중운동들과의 결합을 통하여 대중 속에서 당의 사회적 지위를 끊임없이 높여 나갔다.

. . .

브라질노동자당은 10여년간의 활동을 통하여 대중 속에서 자기 당의 영향력이 일정하게 확대되자 세번에 걸쳐 대통령선거에 나섰다. 첫 국회의원선거에서 10프로 득표하며 4위에 그쳤었던 룰라는 당의 장성과 더불어 광범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며 지난 세번의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등장하였다.

. . .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선거의 방법으로 노동계급과 민중대중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될 수 없고 노동계급과 근로민중대중을 위한 정권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총선이나 대선에 대한 진보정당의 입장과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선거투쟁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당을 합법화하거나 이미 합법화된 당은 그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서 선거투쟁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 선거투쟁을 통하여 반동정당과 반동정권을 폭로고립시키고 진보정당의 정책을 공개합법적으로 대중 속에 선전하며 그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적극 불러일으키는데서 선거투쟁은 매우 좋은 공간으로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진보정당이 선거투쟁자체를 부정하면서 매번 보이코트하는 전술로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총선이나 대선에 참가하며 진보정당의 민주적, 민중적 강령과 정책을 광범한 대중 속에 적극 선전하며 당세를 확대하고 대중적 지반을 더욱 넓히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야 한다. 그러나 선거투쟁일변도로 나가거나 특히 대선투쟁에서 승리하여 진보정당이 대통령을 내세울 수 있고 또 진보적인 민중정권을 세울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착오이다.

더욱이 한국과 같이 미제의 식민지로 있는 나라에서 진보정당이 선거의 방법으로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고 민중정권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환상인 것이다.

선거의 방법으로는 진보정당이 대통령을 내세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한사람의 대통령을 당선시킨다고 해도 곧 그 정권이 민중정권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요컨대 선거의 방법으로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민중정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 . .

그러므로 진보정당이 총선이나 대선투쟁에 나설 때에는 보다 주도세밀한 선거투쟁전술 밑에 반드시 승산

➡

광고

PDF자료집

6.15남북공동선언

6.15공동선언
노작
남북공동성명 /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평양회담과 6.15공동선언발표
김정일동지께서 김대중대통령을 비행장에서 따뜻이 영접하시였다
력사적인 북남최고위급회담 평양에서 진행
김정일령도자께서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북남공동선언에 서명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와 김대중대통령 사이의 단독회담 진행
김정일령도자께서 김대중대통령을 비행장에서 뜨겁게 환송하시였다
6.15공동선언의 의의
남북공동선언은 21세기 조국통일 이정표 /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자
공동선언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통일선언
6.15공동선언실현 과제
현정세와 민족민주세력의 대응 / 현 시국과 민족민주운동의 당면과제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와 오늘의 과제 /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 강화
한민전 중앙위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성명
통일운동조직들에 드리는 서한
한민전 중앙위 당면 ≪투쟁구호≫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청년주체주의자들의 맹약
자주민주통일의 적,이회창을 처단하자
조선일보는 이회창 패당의 기관지 / 대북적대시정책은 파국을 부를 것이다

있는 목표만을 내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브라질노동자당의 건설경험에 대하여, 필자 미상 – 통일여명 편집국 보완 2001 10 20)

＊이하 참고자료

≪이란에서의 반미, 반황제 운동승리에 작용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모든 반미, 반황제 운동단체들의 연대, 연합이 실현된 것이다.

당시 이란에는 이란인민당(공산당의 전신), 이란민족전선, 학생연맹 등 서로 다른 정치적 지향과 군중적 기반을 가진 반미, 반황제 운동단체들이 많았다. 각 단체들은 보수와 진보,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의 한계를 벗어나 호메이니의 왕조타도와 민주회교공화국수립노선을 일치하게 지지했으며 운동의 전기간 반미, 반황제 세력들의 연대, 연합을 견지했다.

팔레비는 각 반정부단체들의 연대, 연합을 파탄시킬 목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쏘련의 사주를 받고 있다≫, ≪이란애국자들이 올바른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이란에 공산독재정권이 서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반미, 반황제세력들의 연대, 연합을 파탄시키고 특히 회교세력과 진보민주세력간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으려고 했다.

그러나 운동지도자들은 팔레비의 음모를 제때에 간파하고 그것을 분쇄함으로써 항쟁단체들간의 연대, 연합과 행동통일을 끝까지 견지했으며 이로써 반미, 반황제 운동에서 높은 대중성이 보장되게 했다.

반미, 반황제 운동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1978년 12월 10일과 11일 2일간에 걸쳐 진행된 회교순교제기념시위투쟁에는 전국적으로 2, 500여만명(수도에서만 3백만명)이 참여했으며 항쟁이 결정적시기에 들어 선 1979년 2월 이후 투쟁에는 수도에서만도 매일 평균 4백만명이상의 시민들이 궐기했으며 그 와중에 병사들이 집단적으로 시위군중편에 합세함으로써 결국 무장봉기로 발전했고 팔레비친미정권을 타도할 수 있었다.

. . .

지금 한국민족민주운동권의 일각에서는 민노총이나 전국연합을 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상술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합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민노총과 전국연합이 민민운동세력의 연대, 연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는 매우 정당하지만...

우선 민노총의 경우 그것은 노동자대중의 조직이지 각계각층의 민중을 대변하는 정치조직은 아니다. 또 식민지 한국사회에서 노동계급은 기득권에서 철저히 배제된 계급으로서 변혁운동역량의 핵심적 부분이지만 그들의 투쟁이 노농대중을 비롯한 모든 진보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는 못한다. 물론 1,200만의 노동계급이 똘똘 뭉쳐 한국사회의 합법적인 지도역량으로 부상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민노총의 활동은 노동자대중의 제한된 계급적 이해관계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날 수 없다. 현실적으로도 그렇다. 얼마 전에 있은 서울지하철노조파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당시 시민운동단체들은 수백만 서울시민의 발을 묶는 지하철노조파업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 문제로 민노총과 시민운동단체들 사이에 일정한 오해와 알륵이 생긴바 있다. 이것은 민노총이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이익에만 집착함으로써 시민운동단체들을 비롯한 다른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이로부터 민노총은 민민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 충분히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전국연합은 어떠한가. 전국연합은 정치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민노총, 한총련, 시민운동단체들과 같은 유력한 민민운동단체들을 실질적으로 망라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의 진보세력에서 사회적 대표성을 갖지 못하며 또한 민민운동권에서 지도적 권위도 확실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가까운 장래에 전국연합이 민노총이나 한총련, 시민운동단체들을 망라시켜 위상을 크게 개선할 전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국연합 역시 민민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는 충분히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한국의 사회여건에서 민민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 가장 합당한 것은 합법적인 진보정당이다.

본디 연합전선운동은 각이한 정당, 정파들간에 정치적 동맹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그 주체세력으로는 마땅히 정당형태를 갖춘 정치조직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제도정치권 안팎의 여러 정당, 정파와의 폭넓은 정치적 연합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면정권시기인 1961년 2월 민족자주통일협의회(민자통)가 결성된바 있다. 여기에는 근 40개의 민민운동단체들과 중간혁신정당들까지 참가했다. 당시로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주체세력으로 활동한 것은 사회대중당(대표 김달호), 사회당(대표 최근우)과 같은 합법적인 혁신정당들이었다.

제반 사실들은 연합전선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보더라도 그 주체세력은 정당형태의 정치조직이어야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민민운동권안에서 유일하게 정당형태를 갖춘 조직인 민노당은 아직 원내에 단 1명의 의석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 위상이 높지 못하고 또 당의 계급구성면에서도 문제성이 있는 등 적지 않은 부족점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부족점에도 불구하고 민노당은 진보적인 정치이념과 자주적 민주사회건설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가진 합법적 진보정당으로서 반동보수정치에 극도의 혐오감을 느끼는 민중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난 4.13총선과 6.27지방선거를 통해 민노당은 그 어느 민민운동단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정치적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앞에서 이야기한 결함들을 고쳐 주어서라도 민노당을 한국사회의 모든 진보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대중적인 진보정당으로 발전시키고 그를 주체세력으로 내세워 모든 민민운동세력, 진보적 시민운동세력을 망라하는 대규모의 민족민주운동련합전선조직체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한국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연합과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 건설문제, 한백연 1999년 11월 발표)

(내일 계속)

통일여명 편집위원 한철규 발췌 (편집국 보도 64호)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통일운동의 진두에 서시여 (3)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세계인들속에서 우리겨레의 조국통일대업에 대한 국제적련대를 강화하는 현명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같은 해 9월에 열린 제4차 블록불가담운동 국가정상회의는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방침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또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북구라파나라들의 련대성회의≫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합들과 국제기구회의들에서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5대방침을 지지찬성하는 선언, 결의를 련이어 채택하였다.

그분께서는 유엔무대에서도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겨레의 목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고 조선반도문제토의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시였다.

제28회 유엔총회에서는 조국통일3대원칙에 대한 지지가 표명되고 미국의 내정간섭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즉각 해체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이것은 이북의 자주통일강령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승리였고 그 의미는 유엔을 조선반도에 대한 침략정책수행의 도구로 리용해오던 미국의 장기간에 걸친 범죄적책동이 파산되였다는 것이다.

70년대 중반에 이르러 내외분열주의세력의 전쟁도발책동에 이해 조국통일의 앞에는 엄혹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월남전선에서 패퇴한 미국은 ≪전선방위지역≫으로 선포하고 핵무기를 대량 끌어들였으며 1976년부터는 북침을 노린 핵전쟁연습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훈련을 벌려놓고 그것을 해마다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침위협≫을 떠들면서 우리 나라의 동서600리구간에 민족분단의 콩크리트장벽을 쌓아 한지맥의 국토를 동강내고 우리겨레의 통일열망을 가로막는 천추에 용서못할 반민족적범죄행을 저질렀다.

≪유신≫독재의 영구분렬책동이 새로운 양상을 띠며 로골화되고 있는 정세에 대처하여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민족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자체의 힘으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실현하여야 하며 이남에서 절대다수의 민족민주세력이 련합을 이룩하여 극소수의 반통일파쑈세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였다

그리하여 북쪽에서는 통일의 주체적력량이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분야에서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으며 남쪽에서는 반통일세력에 맞서는 애국적민주세력의 련합이 촉진되고 해외교포들의 통일력량도 성장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에 의해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조선반도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현대조직들이 련이어 결성되였다.1977년 2월과 1978년 11월에는 벨지끄의 브류벨과 일본 도꾜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와 같은 국제적련대운동이 세계적규모에서 빠른 속도로 조직화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날을 따라 확대되여갔다. 1979년 한해동안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서명운동에 128개 국과 31개 국제기구, 지역들에서 10억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계속)